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안전보건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조심조심
코리아

07

vol. 263 2011 July



Special Report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산재예방 달인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유화부문 인천공장
성학수 환경안전그룹장



HAPPY
FEELING

행복느낌
글 김윤미



여름바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맑은 남색의 여름바다
햇빛에 반짝이는 바닷물이 여름을 비춘다

풍겨오는 바다내음이 더위에 지친 몸을
시원하게 시원하게 식혀 준다

반짝이는 모래알을 하얀 거품을 내뿜으며
삼켜가는 여름바다

출렁일 때마다 부는 미세한 바람이 뜨거운 이마를
쓰다듬으며 하늘 위로 올라간다



독자의 소리

〈안전보건〉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안전보건〉을 읽으신 후 느낀 소감을 독자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2011.06_ 8p

‘산소의 두 얼굴’ 기사들을 통해 평소 중요성을 잊고 있던 산소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항산화 식품에 대한 소개가 유익했으며, 산소가 부족한 밀폐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식재해에 대한 기사도 산업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선민(경북 영주시 휴천동)



2011.06_ 22p

안전보건공단이 YTN과 함께 펼치고 있는 ‘조심조심 코리아’ 캠페인 방송을 지면으로 소개한 코너에 눈길이 갑니다. 방송은 보지 못했지만 사회 저명인사의 안전메시지를 책을 통해나마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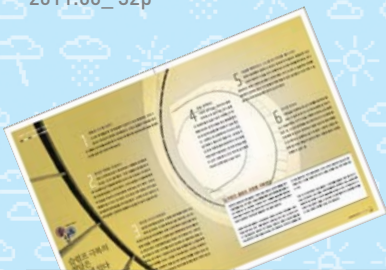
이진명(경기 시흥시 정왕동)



2011.06_ 32p

‘직업열전-오세훈 집배원’ 편을 읽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25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오세훈 집배원님의 성실함이 무척 우러러 보입니다. 앞으로도 교통법규 준수와 방어운전 잘 하셔서 매일 매일 안전과 행복을 배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김경한(서울시 노원구 월계1동)



2011.06_ 66p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슬럼프에 관한 Theme story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슬럼프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컨트롤 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군요. 직장인 슬럼프 유형별 극복방안과 같은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인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사를 자주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민정아(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Contents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안전보건 2011년 7월호 제23권 제7호(통권 263호)

발행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인 노민기

기획편집 교육미디어실

편집위원 박동기, 이지현, 박남규, 김일수, 김중윤, 김중호,
이주영, 유호진, 박태순, 서규성, 윤권일, 장석철, 이현경

담당 한성주(h97012@kosha.net) 032-5100-682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34-4)

홈페이지 www.kosha.or.kr

제작 및 편집디자인 대통기획 02-516-3614

사진 e-cube 스튜디오

인쇄 두산동아(주) 안산공장 031-489-7842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들은 각 필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월간(안전보건)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위시 매거진'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3 독자의 소리

06 KOSHA 포커스

08 Special Report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 고열장해 예방법

– 여름철 질병과 예방법

– 여름철 날씨의 특징과 주의해야 할 산업재해

– 감전재해 예방대책

생각 더하기

20 안전보건 포커스

제44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소개

24 명사의 안전메시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외

26 산재예방 달인

(주)코오롱 인더스트리 유화부문 인천공장 성학수 환경안전그룹장

30 화제의 현장

조심조심 코리아 마음경연대회

32 통계로 보는 안전보건

당신은 지킬박사? 혹은 하이드 씨?



08



26



50

- 34 **직업열전**
성광용역 신경택 환경미화원
- 38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
거꾸집 동바리 작업안전

실천 곱하기

- 44 **화제의 명예감독관**
유니온스틸(주) 부산공장 주해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48 **생활안전 플러스**
여름철 건강 지키는 식품 상식
- 50 **무재해 실천일지**
삼성중공업(주) 명례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 54 **건강 365**
여름철 자외선 예방법
- 56 **함께 배우는 스트레칭**
목을 비틀면서 몸통을 굽히는 용접작업자를 위한 스트레칭
- 58 **건설업 중대재해사례**
누전된 상태에서 핸드그라인더 잡다가 감전되어 사망
- 60 **제조업 중대재해사례**
혼합기 안에 작업자 있는 것 모르고 동료가 전원 버튼 눌러 사망

- 62 **서비스업 중대재해사례**
안전장비 없이 4륜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 사망

느낌 나누기

Theme Story - 경쟁

- 66 **Theme Keyword**
진정한 경쟁의 아름다움
- 68 **Theme Touch**
선의를 경쟁으로 세상을 바꾼 시대의 라이벌
- 70 **Theme Essay**
아름다운 경쟁을 위하여
- 72 **Theme Plus**
나만의 경쟁력을 높여라
- 74 **지구촌 안전보건**
- 76 **Issue & Focus**
- 78 **KOSHA NEWS**
- 80 **안전인증현황**
2011년도 5월 안전인증 취소현황
- 82 **KOSHA info & 독자퀴즈**



산업재해 예방 위해 노·사 함께 뭉쳤다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사업 업무추진 협약’ 체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사업 업무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화합으로 그 어느 때 보다 분위기가 따뜻했던 협약식을 살짝 들여다 보았다.

한 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한국경총)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11년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 공동사업을 최초로 전개한다.

한국노총, 한국경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6월 1일, 안전보건 개선활동의 성공적인 수행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2011년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PAOT-OSH)사업 업무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공단의 최대열 교육홍보이사와 한국노총의 정영숙 본부장, 한국경총의 이호성 상무 그리고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 9일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해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특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최초로 힘을 모아 공동사업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노총 정영숙 본부장은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총, 경총, 공단 세 기관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총 이호성 상무는 “이번 체결을 계기로 안전보건산업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1995년 재해율 1% 미만 진입 이후, 현재까지 재해율은 0.7%(2010년 0.69%)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 70%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안전 전문가 위주의 정책에서 노·사가 직접 주체가 되어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거나 개선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에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공동으로 전개하는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 사업’은 5개 권역(경기, 충북, 경북, 울산, 전남)의 200개 사업장의 노·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노사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훈련과 교육 이후 안전보건 개선 활동이 현장에 정착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이러한 개선성과를 다른 사업장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사참여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도 개최하게 된다. 이러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노·사의 자주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개선활동의 정착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공동사업의 모델개발을 제시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모으고 있다.

한편, 공단 최대열 교육홍보이사는 “이번 협약 체결은 노·사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며 앞으로 이 같은 활동에 대해 공단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교육홍보이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영숙 본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호성 상무
한국경영자총협회





여름철 날씨와 산업재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여름철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장마와 함께 태풍이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과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 북반구 지역의 여름철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장 근로자는 물론 전 국민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매년 여름 이어지는 폭염과 장마철 감전재해 예방까지, 여름철 날씨와 산업재해의 특성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Special Report. 1

여름철 날씨와
산업재해

여름철 폭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고열장애 예방법

유례없는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 속에 6월부터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건설, 조선 등 옥외 사업장 근로자나 폭염에 취약한 고열 작업장 근로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자. 정리 유성원 참고자료 질병관리본부

태양의 경고 '고열장애'

열경련과 일사병 등 열손상으로 인한 질병은 여름철 근로자들에게 발생하기 가장 쉬운 질병이지만, '나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에 간과하기 일쑤다. 또 고열장애에 대한 증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조치로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예를들어 일사병은 더운 곳에서 운동하거나 일할 때, 장시간 햇볕에 노출됐을 때 체내에서 염분과 수분이 과다하게 빠져나가 생기는 병이다. 열사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하거나 강한 열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을 잃어 생긴다.

일사병은 피부가 차고 땀을 많이 흘리며 창백해 보인다. 반면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높은데도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해 보인다.

일사병과 열사병의 공통점은 의식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발한 기능이 망가져 땀이 나지 않는 열사병이 일사병보다 사망 위험이 훨씬 크다. 노인들은 혈관이 잘 확장되지 않아 열 발산이 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땀이 덜 나고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열사병에 더욱 취약하다.



유형	발생원인	주요증상	응급조치
열경련	- 과도한 염분 손실 - 식염수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실 때 발생	- 근육경련(사지근, 복근, 배근 등) : 30초 또는 2~3분 동안 지속 - 체온은 정상(36.5℃)	- 0.1% 식염수 공급 - 경련발생 시 근육 마사지
열탈진	- 고온작업 시 체내수분 및 염분 손실 - 고온작업을 더나 2~3일 쉬고 다시 돌아올 때 많이 발생	- 피로감, 현기증, 식욕 감퇴, 구역, 구토, 근육 경련, 실신 등 - 체온 38.5℃ 이상	-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 0.1% 식염수 공급 -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열사병	- 체온조절 장애 - 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폭로될 때 발생	- 현기증, 오심, 구토,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허탈, 혼수상태, 헛소리 등 - 체온 40℃ 이상	-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심,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게 해줌 - 의식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
열허탈증(열피로)	- 고열환경 폭로로 인한 혈관장해(저혈압, 뇌산소 부족)	- 두통, 현기증, 급성 신체적 피로감, 실신 등	-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 적절한 휴식, 물과 염분을 섭취
열발진(땀띠)	- 땀을 많이 흘려 땀샘의 구멍이 막혀 발생하는 땀샘의 염증	- 홍반성 피부, 붉은 구진 발생, 수포, 홍문 발생	- 시원한 실내에서 안정, 피부를 청결히 함

일사병에는 부추·상추·깻잎 등 녹색채소와 바나나·수박 등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 제격이다. 이온음료를 통해 무기질을 섭취하거나 오미자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가 있다. 열사병에는 단백질·비타민·무기질 공급이 많을수록 좋다. 영양을 보충하려면 닭·우유·달걀·콩에 제철 과일과 채소를 곁들여 섭취하면 좋다.

사업장도 ‘안전한 여름나기’ 해법 필요


예년보다 빨라진 불볕더위에 산업 현장에서의 여름철 대책도 비상이 걸렸다.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생산성 역시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아이스크림 제공, 점심시간 연장, 낮잠제도 운영 등 갖가지 ‘여름나기’ 해법을 내놓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매일 오후 3시에 현장 근로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장 식당마다 체빙기도 설치, 얼음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아자동차는 특별 간식으로 수박화채나 얼음 미숫가루 등을 제공한다.

철강업계는 평소 직원들이 뜨거운 용광로와 함께 일하는 만큼 직원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7~8월 의사와 간호사 등의 진료팀을 현장에 보내는 순회진료 활동을 벌인다.

현장 업무가 위주인 건설업계도 여름 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대다수 회사들은 7~8월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후 1~3시에는 외부 작업을 하지 않거나 아예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근로자들이 짧은 낮잠으로 불볕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시에스타’ 제도를 시행 중이다. SK건설은 집중호우로 인한 감전 사고에 대비해 전기를 쓰는 모든 기계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질식을 막기 위해 탱크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산소농도 측정을 의무화했다.

점심시간도 늘어난다. 현대중공업은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한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온이 섭씨 28도 이상 올라가면 점심시간을 30분, 32도 이상으로 치솟으면 1시간 연장한다. 삼성중공업은 매일 오전 11시 50분 온도가 28.5도를 넘으면 30분, 32.5도를 넘기면 1시간씩 늘리고 있다.

이처럼 유난히 무더운 올 여름, 사업장의 안전대책과 근로자 개개인의 예방법을 통해 올 여름 무더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Tip

“여름철 폭염 땐 오후 2시~5시 충분히 쉬세요”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안내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불볕더위에 근로자들이 건강을 해치거나 산업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각 사업장은 자유 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게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폭염주의보보다 높은 단계인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낮잠시간 운영을 한 시적으로 검토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9월까지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고열작업장과 옥외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지도할 계획이다.





Special Report.2

여름철 날씨와
산업재해

여름철 질병 이것만 지키면 OK

조심한다고 해도 걸리기 쉬운 것이 질병이다. 특히 여름철엔 여러 질병이 많이 발생하므로 다른 계절보다 더욱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나를 공격하는 무서운 질병도 피하는 방법을 알고 대처한다면 만사 OK! 여름철에 걸리기 쉬운 질병과 예방법을 알아본다.

정리 유성원



여름철 대표 질병 '식중독'

여름철 불청객 중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식중독이다. 식중독은 섭취한 음식물의 독성 물질 때문에 발생한 일련의 증후군을 말한다.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집단 급식을 하거나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는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식중독에 한 번 걸리면 며칠간은 고생해야 하므로 평소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

식중독은 가열의 원칙과 청결의 원칙 그리고 신속의 원칙 세 가지를 지키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모든 음식은 가열하고 조리해 완전히 익혀 먹는다. 식품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손을 자주 씻는다. 식품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조리한 음식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먹는다. 녹차·생강·마늘·양파·식초 등 항균 효과가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이런 식품을 평소 많이 먹어두면 식중독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우선이다. 가벼운 증상은 모과와 매실을 먹는 것이 도움된다. 모과는 지친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매실은 갈증과 복통을 완화시켜준다.

음식을 통해 발병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되도록 음식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굶으면 영양 부족 현상이 일어나므로 저지방·저섬유소 음식을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머리는 지끈 코는 멍멍 '냉방병'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있지만, 사무실의 에어컨 바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감기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냉방병은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질병이다.

냉방병은 더위에 익숙해진 몸이 찬 공기에 노출되어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나타난다. 콧물, 기침과 같은 감기 증상이 나타



나고 발열과 오한이 나타날 수도 있다. 두통과 근육통도 발생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적정 실내 온도는 27~28도, 실내외 온도차는 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환기는 가능한 한 자주 하고, 미지근한 물과 차를 수시로 마신다. 또 사무실에 가벼운 긴 옷을 준비했다가 에어컨 바람이 부담스러울 때 착용하는 것도 좋다. 에어컨 바람을 바로 맞는 것을 피하고,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땀을 닦은 후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냉방병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은행·잣·호두 등 견과류와 더덕·도라지·황기·미나리·쑥갓 등이다. 이들 식품을 먹으면 냉방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흔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자주 찾는 '삼계탕'도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참을 수 없는 가려움 '땀띠'

여름철에 주로 생기는 땀띠는 가려움을 유발해 사람을 힘들게 한다. 땀띠는 땀구멍이 막혀 땀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해 축적되면서 작은 발진과 물집이 생기는 질병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생긴다. 다른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초기에 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땀띠 예방의 기본은 땀이 나는 활동을 피하고 선풍기·에어컨으로 시원하게 하는 것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면 소재의 옷을 착용하고, 자주 갈아입는다. 땀이 나면 수건이나 물티슈를 이용해 바로 닦는다. 유아의 경우 엉덩이 부위에 땀띠가 잘 생기므로 기저귀를 벗기고 시원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땀띠가 났을 때에는 열을 식혀 주는 오이 즙을 몸에 바르면 효과가 있다. 알로에 즙도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다. 땀띠가 생겼을 경우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이 좋다. 전복죽은 영양도 풍부하지만 육류를 싫어하는 사람도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 특히 좋은 음식이다. 🍴

Tip.1

모기야 덤벼라! - 여름 모기 퇴치법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최악의 구제역 파동으로 사람에 대한 모기 흡혈률이 급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여름철 모기 퇴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려움은 물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모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청결한 몸 상태를 유지하자 모기는 후각이 발달한 곤충이다. 따라서 땀 분비가 왕성한 여름철에 발 냄새, 땀 냄새를 제거해주는 것만으로도 모기를 피할 수 있다. 만약 땀을 제거하지 않은 채 잠들거나, 향이 자극적인 스킨이나 비누, 향수를 사용하는 것은 후각이 예민한 모기를 불러 모으는 지름길이다. 잠들기 전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모기는 밝은색 옷을 싫어해 모기는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한다. 색깔로는 빨강, 파랑, 검정 등 진하고 어두운 색상을 좋아하고, 노랑, 연두, 흰색 등 밝은 색상의 옷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결한 환경' 조성이 중요 일단 모기 유충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화장실, 싱크대의 고인 물을 자주 청소하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실내에 꽃병이 있다면 자주 물을 갈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Tip.2

더위 이기는 3가지 '최고의 법칙'

① **미지근한 물 샤워는 '최고의 숙면'** 무더운 여름, 가장 곤혹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불면증이다. 숙면을 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잠들기 1~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을 이용해 샤워를 하게 되면 최고의 숙면을 취할 수 있다. 단, 잠들기 전 찬물 샤워는 잠자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덥다고 찬물로 샤워하는 것은 좋지 않다.

② **30분 미만의 낮잠은 '최고의 보약'** 여름이 되면 몸이 쉽게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진다. 이럴 때 하루 일과 중 단 5분, 10분이라도 중간 중간 눈을 붙이면서 피로를 풀어보자. 하루 30분미만의 낮잠은 여름철 건강과 피로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일의 능률도 높여준다. 하지만 지나친 낮잠은 밤에 잠을 안 오게 할 수도 있으므로 좋지 않다.

③ **채소와 과일 섭취는 '최고의 영양'** 균형 잡힌 식사도 여름철 건강을 위해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과일이나 채소 등을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영양분을 부족함 없이 섭취해 주어야 건강하게 여름 무더위를 이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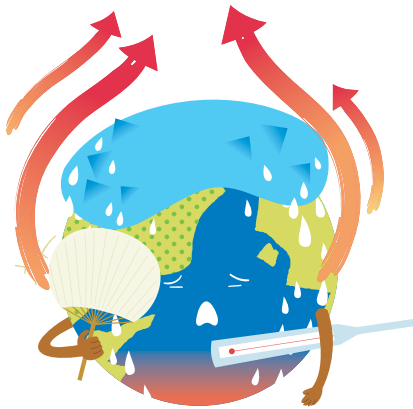
Special Report.3

여름철 날씨와
산업재해

뜨거운 여름, 이런 재해 발생한다!

여름철 날씨의 특징과 주의해야 할 산업재해

6월 중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기온이 급상승하고 있다. 가뭄이나 더위로 지쳐가는 요즘, 이상 더위 현상이 앞으로는 일상화 될 것이라는 연구 발표까지 나와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사업장에서의 안전대책은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법. 여름철 날씨의 특징과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 유형을 알아 보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세워보자. 정리 유성원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올여름에는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또 길게 이어진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다. 실제로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여름철 기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국립기상자료센터(NCDC)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1895년 기상 자료 수집이 시작된 이

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환경 삼림 연구소 노어 디펜바우 교수 연구팀은 “수십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혹서기가 앞으로는 여름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2039년까지 북반구 10곳 중 7곳의 여름 온도는 그동안 최고로 더웠던 여름보다도 기온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년 안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의 열대 지역에서도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름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인간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3년 유럽을 강타한 무더위는 4만 명의 인명을 앗아 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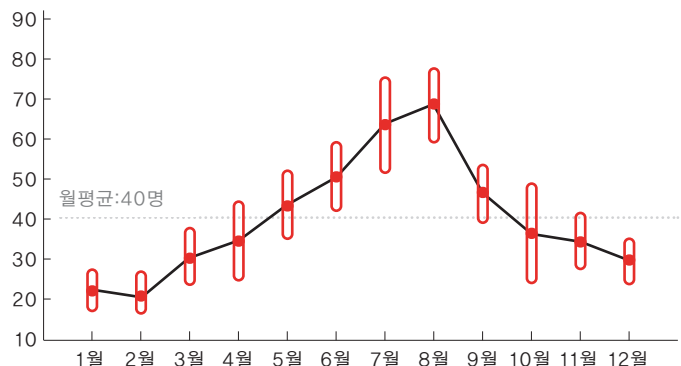
다음에서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세워보자.

장마철에 자주 발생하는 ‘감전재해’

‘감전재해’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해이다.

최근 10년간 감전으로 인한 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4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8월에는 월평균 69명으로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높은 기온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7~8월까지 감전으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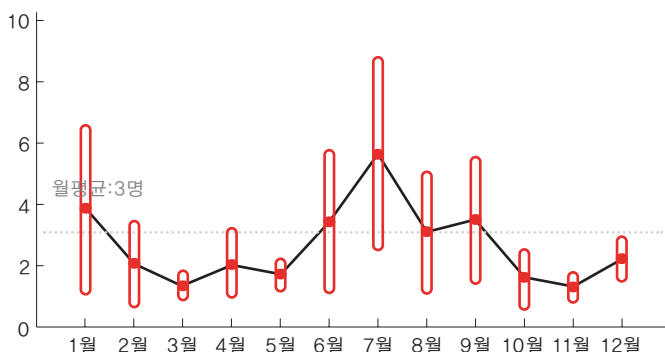
올해는 폭염과 더불어 집중호우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커 감전재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소결핍의 공포 ‘밀폐공간 질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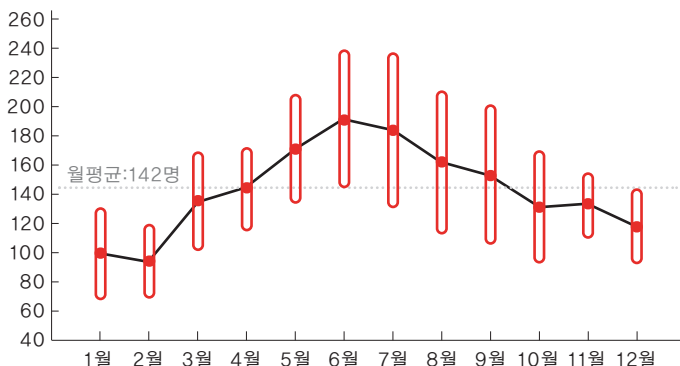
산소결핍 등 질식으로 인한 재해도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집중호우가 잦아 밀폐공간에서 미생물이 단시간 쉽게 번식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유해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질식사를 일으킨다. 때문에 정확조, 맨홀, 폐기물과 관련된 업종에서는 여름철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10년간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7월에는 월평균 6명 발생하고 있고, 재해발생 시 66.0%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뜨거운 여름 ‘화상사고’ 주의

음식서비스 업종에서는 여름철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이상온도(화상, 동상)에 의한 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142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7월에는 월평균 183명으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덥다고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다가 화상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더워도 화기 사용 시에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벌 쏘임’, ‘벌목작업’ 중 재해도 조심

이외에도 벌 쏘임 재해와 미숙련 공공근로자의 절단·베임·찔림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곤충 및 동물상해에 의한 재해는 월평균 13명 발생하고 있으며 7월에 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초목이 무성히 자라고 잦은 비로 인해 산지가 미끄럽기 때문에 미숙련 공공 근로자의 벌목작업 등에 의한 절단·베임·찔림 사고도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절단·베임·찔림으로 인한 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396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7월에는 월평균 482명으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함으로 볼 수 있다.

여름철 ‘폭염’ 으로 인한 재해 증가

여름철에는 장마는 물론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호우나 강풍이 발생했을 때는 실외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재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폭염은 발생하더라도 실외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재해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폭염 발생 시 재해가 18.0%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은 46.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도 정상기상일에 비해 재해가 27.0% 증가했다. 발생형태별로 비교해 보면 총돌이 140.0%가 증가하고 있으며, 낙하 비레가 57.0% 증가했다.

여름철 폭염이 발생하면 집중력 저하와 근로자의 건강도 위협받게 되므로, 작업공간의 열기를 내리도록 조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는 등 현장 차원에서의 폭염대책이 필요하다. 🌞

	폭염발생	정상기상	증감률
전체	326	276	18.1%
업종	건설업	69	27.5%
	서비스	97	-2.1%
	제조업	69	46.4%
발생형태	총돌	15	140.0%
	추락	37	27.0%
	전도	53	18.9%
	낙하비레	21	57.1%

※ 정상기상일은 폭염 발생일의 계절과 지역, 휴일 정보 등을 고려해 동기간 선정.



Special Report.4

여름철 날씨와
산업재해

위험천만 여름철 감전사고 주의보

감전재해와 예방대책

여름철은 높은 습도로 인해 전기기기의 누전 우려가 크고 땀에 의해 인체저항이 감소해 다른 계절보다도 감전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 더위로 인한 집중력 저하도 감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 기상변화가 심한 여름철, 감전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확실히 세워 안전한 여름을 맞이하자. 정리 유성원



감전재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

여름철에는 높은 습도로 전기기기의 누전 우려가 높으며, 폭우로 인한 전기기기의 침수, 더위로 인한 적절한 복장 및 보호구 착용기피, 땀으로 인해 인체저항 저하 등으로 다른 계절보다도 감전재해 발생가능성이 높다. 특히 감전재해는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다른 재해에 비해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감전재해는 작업 시 절연되어 있지 않거나 노출되어 있는 전선 등에 접촉하거나 전기공사 또는 전기기기의 정비·조작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감전재해에

방 3대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감전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은 접지 실시,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기기 정비시 전원 차단이다. 모든 전기기기의 철재 외함(외부 전기공급함)에는 접지를 실시하고, 이동형 전기기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전기기기 등을 정비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 차단 후 작업해야 한다. 만약 감전재해로 인해 호흡정지 시에는 1분 이내에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하면 소생률이 95%까지 가능하므로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에서 감전 예방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전기기계기구의 감전 예방대책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감전재해는 누전에 의한 경우이다.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대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함 접지와 누전차단기 설치이다.

사전에 절연저항을 측정해 누전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감전을 완전히 예방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측정 이후 불시에 누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대비한 근본적인 안전조치가 바로 외함 접지이다.

접지공사의 필수 조건은 외함 접지저항을 낮추는 것으로 접지봉 또는 접지판 등 접지극을 땅속에 깊이 매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외함을 접지극 전선에 의해 땅속의 접지극에 연결하게 되면 그 기계기구는 움직이지 못하므로 고정형 설비에는 적합하나 이동형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 접지방법은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인데, 반면 가장 잘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동형 전기기계기구는 기계기구 외함 - 접지형 코드선 - 접지형 플러그 - 접지형 콘센트 - 접지봉(또는 접지망) 등의 순으로 접지를 해야 하므로 전용 접지선이 케이블에 전원선과 함께 따로 내장되어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전원측의 과전류 보호 장치가 감지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전류에서 동작해 인체를 감전으로부터 보호한다. 누전차단기는 보통 정격 감도전류가 30mA 라는 아주 작은 전류에 의하여 작동하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비접지 방식의 전로에서는 근본적으로 누전이 되더라도 이에 관한 사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누전차단기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기적인 시험을 게을리 하면 누전사고 시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셋째는 전자파 또는 누설전류 등에 의해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 체크포인트

- ① 규격 검정품을 사용한다.
- ②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누전여부를 점검한다.
- ③ 전기기계기구의 금속 외함을 접지한다.
- ④ 접지선이 내장된 코드선을 사용하여 누전 시 회로가 차단되도록 한다.
- ⑤ 꽃을 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사용한다.

가공선로 부근에서의 감전 예방대책

가공선로 접촉에 의한 감전사례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요 원인으로는 파이프, 긴 철근 등의 도전성 공사자재 취급 중 가공선로에 접촉하거나, 이동식 크레인 항타기 등의 건설 장비 사용 시 가공선로에 접촉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다.

* 체크포인트

- ① 공사개시 전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② 가공선로가 활선상태인 경우 절연용 보호구나 방책을 설치한다.
- ③ 절연물 방호구, 방책 설치시는 경험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 후 활선작업용 기구로서 적절한 방호구를 올바른 설치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 ④ 가공선로에서 정전상태에서 작업할 경우, 전력회사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뢰한다.
- ⑤ 정전작업 시는 전력회사의 담당자가 연락을 확실히 한다.
- ⑥ 가공선로에 위험 표지를 설치하고 가능한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한다.

외함 접지와 누전차단기 설치해야

앞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 외함 접지공사를 완벽하게 실시하는 방법과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접지, 누전차단기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외함 접지공사를 하되 접지 저항치를 아주 낮게 유지하도록 하고, 물 등 습기가 많은 장소에 꽃을 접속기형 누전 차단기를 추가하는 것이다. 반대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를 생략하였다면 올바른 감전재해 예방대책이라 할 수 없다. 실제로 이와 같이 누전차단기만 설치하여 누전 시 감전으로 사망한 예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공선로 부근에서 작업할 때에는 활선상태인 경우 절연용 보호구나 방책을 설치하고, 정전상태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전력 회사에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의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기작업 중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을 하고,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설치해 전원의 재투입을 방지해야 한다. Ⓢ

위험에는 옐로카드가 없습니다

**2011년 5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대상에 한함)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위험을 방치하면 안전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예방 최우선의 자율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고자
2011년 5월 19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석면 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이나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등
-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Thinking

생각 더하기



20	안전보건 포커스
24	명사의 안전메시지
26	산재예방 달인
30	화제의 현장
32	통계로 보는 안전보건
34	직업열전
38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



건설현장 안전수칙 'Best 4'

- ① 정해진 작업방법·순서 등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공사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생각으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면 사고가 난다. 미리 공종별 작업안전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위험한 행동은 자제하고 무리한 작업은 금지한다. 높은 위치에서는 반드시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지용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면 재해가 발생하기 쉽다.
- ③ 작업 중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습관화한다. 보호구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덥거나 불편하다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불과 1~2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도 있다.
- ④ 현장 정리정돈을 생활화한다.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동선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 바닥에 쌓여 있는 건축자재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 등이 발생한다.

생각 더하기 안전보건 포커스



제43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The 43rd Week of Safety & Health

2010.7.5(월)~10(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난해 열렸던 제43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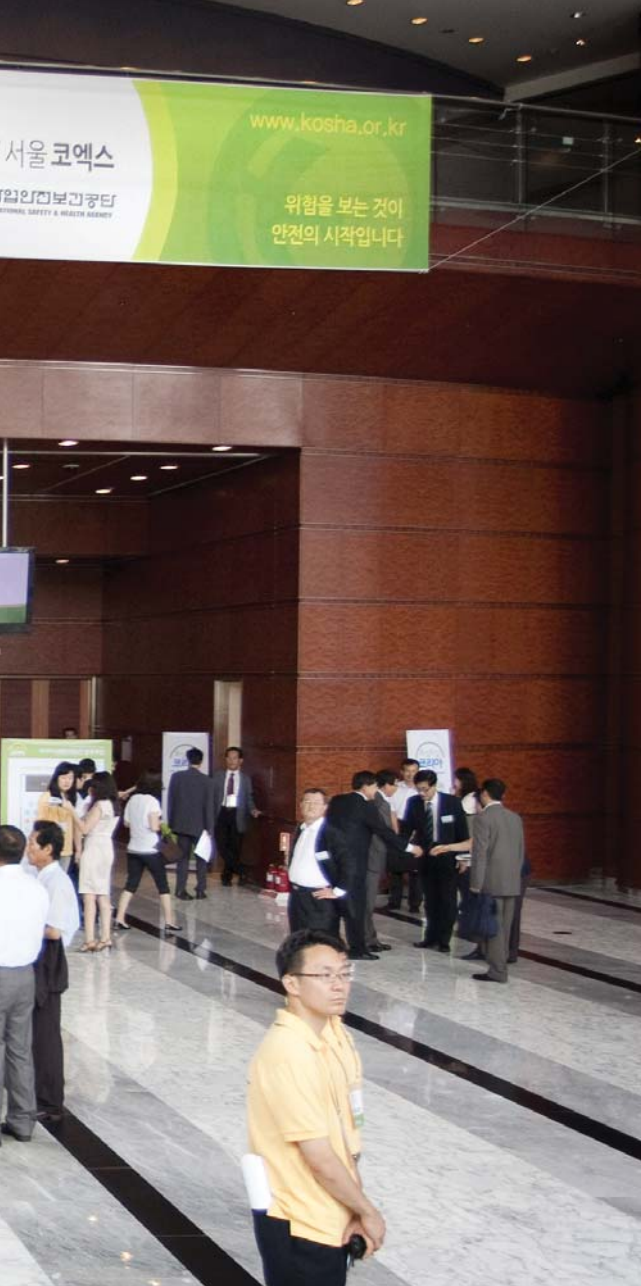
제44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

7월 4일부터 6일간 코엑스서 열려

국내 최대의 안전보건 축제인 산업안전보건주간 행사가 7월 4일부터 6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 역시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안전보건 세미나,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 안전보건 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풍성한 볼거리와 유용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제44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를 미리 살펴보았다.





올 해로 44회째를 맞이하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는 7월 4일부터 9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안전보건 분야의 지향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는 국민 참여형 행사로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안전보건 UCC Show, 안전 동요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안심일터 만들기 운동’을 널리 알림으로써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행사와 풍성한 볼거리 가득

기념식 ● 제4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은 7월 4일 오전 11시 그랜드볼룸(101~103호)에서 열린다. 기념식은 산업안전유공자와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안전관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기획되었으며, 연회형식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에서의 사회 각 주체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노·사·민·정 역할을 상징하는 퍼포먼스, 산재예방 결의를 새롭게 하자는 메시지 영상물, 훈포장 수상자들의 안전보건 방침과 활동을 담은 영상물 상영 등이 진행된다. 기념식에는 VIP 및 수행자 40명, 정부 포상자와 가족 40명, 우수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80명, 업무협약 및 안전보건 협력사업 참여기관 대표 30명 등 3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공단 세미나

일시	장소	세미나명	단체명	인원
7월 4일 13:00~17:00	104~105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2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작업환경연구실	300
7월 4일 13:00~17:00	317	인재경영의 완성은 건강경영이다	직업건강실	150
7월 5일 13:30~17:00	402	산업기계 안전 선진화 방안	안전인증실	162
7월 5일 13:00~17:00	327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제도와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산업안전실	150
7월 5일 13:00~17:00	E3	서울선언 실행 실천방안 토론회	국제협력팀	170
7월 5일 10:00~12:00	301	근로환경조사 심층분석연구	재해통계분석팀	100
7월 6일 13:30~17:00	327	작업환경측정기관 수준향상을 위한 질(Quality) 평가방안	직업건강실	150
7월 6일 10:00~12:00	402	건설업체 안전관리 성공사례	건설업재해예방실	162
7월 6일 13:00~17:00	318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제·개정 검토를 위한 토론회	직업병연구센터	150
7월 6일 13:00~16:30	300	국내 GHS MSDS 제도시행의 성과 및 향후계획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112
7월 7일 13:00~17:00	E3,E4	서비스업 안전보건 선진화 방안	서비스업재해예방실	170
7월 7일 10:00~17:00	300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 및 집행체계 선진화 방안	안전경영정책연구실	112
7월 8일 09:00~12:00	301	산업안전분야 주요 연구결과 발표	안전시스템연구실	100

고용노동부·외부 기관 세미나

일시	장소	세미나명	단체명	인원
7월 4일 13:00~17:00	308	정책세미나 1 (제조산재예방과)	고용노동부	150
7월 4일 08:00~12:00	308	산업보건에서 직업보건으로의 패러다임전환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50
7월 4일 13:30~17:00	318	사회 각 주체의 재해예방역할을 통해 바라본 서비스업산재예방정책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150
7월 5일 09:00~12:00	327	정책세미나 2 (산재예방정책과)	고용노동부	150
7월 5일 09:00~12:00	300	선진 안전한국 건설을 위한 안전문화조성방안	안전문화시민연대	112
7월 5일 13:00~17:00	이벤트존	명사의 명강의	한국안전교육 강사협회	100
7월 5일 13:00~17:00	E1	기업의 간접성 향상을 위한 선진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활용	DNV Korea Ltd.	170
7월 5일 13:00~16:00	E6	안전·보건·의 뉴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보호구	한국보호구협회	170
7월 6일 10:00~12:00	301	가설기자체 법 규정과 제도의 이해	한국가설협회	100
7월 6일 09:00~12:00	307	직장여성의 안전보건과 저출산 대응전략	한국산업간호학회	150
7월 6일 13:00~17:00	317	학교 안전관리실태 및 안전교과 추진방향	한국학교보건학회	150
7월 6일 13:00~17:00	402	정책세미나 3 (건설산재예방과)	고용노동부	150
7월 7일 09:00~12:00	301	정책세미나 4 (서비스산재예방팀)	고용노동부	100
7월 7일 08:00~17:00	401	Play-Acting about Safety (안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산업안전협회	400

우수사례 발표대회 일정

일시	장소	실시부문	주관
7월 4일 13:00~17:00	307호	대기업 안전부문(제조·서비스업)	산업안전실
7월 7일 13:00~17:00	E 6	대기업 안전부문(건설업)	건설업재해예방실
7월 6일 13:00~17:00	301호	중소기업 안전부문(제조·서비스업)	산업안전실
7월 5일 13:00~17:00	300호	중소기업 안전부문(건설업)	건설업재해예방실
7월 7일 13:00~17:00	E 1, E 2	직업건강 활동부문	직업건강실
7월 6일 13:00~17:00	308호	안전인증부문	안전인증실
7월 7일 13:00~17:00	301호	민간단체 활동부문	문화홍보실
7월 4일 13:00~17:00	300호	공공기관 활동부문	경영기획실
7월 5일 13:00~17:00	301호	교육훈련부문	교육원
7월 6일 13:00~17:00	307호	산업간호 우수사례	한국산업간호협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

● 올해로 제29회를 맞는 국제안전보건 전시회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Hall A(구 태평양홀)에서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안전기기, 보호구 등과 같은 각종 안전보건 기구들을 전시하며 일반 관람객들에게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안전 동요제’는 7월 5일 오후 1시부터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되며 ‘안전문화 포스터 그리기 대회’ 역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월 4일 오후 1시부터 국제안전보건전시장 내 이벤트 존에서 열린다. ‘안전문화 백일장’은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 모두가 참가할 수 있으며 안전과 관련된 주제를 운문이나 산문으로 작성하면 된다. 7월 6일 1시부터 국제안전보건전시장 내 이벤트 존에서 실시된다. ‘안전보건 UCC Show’는 지난 5월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품을 7월 4일부터 7일까지 국제안전보건전시회(Hall A) 내 안전보건홍보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안전보건 세미나

● 안전보건 세미나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컨퍼런스센터와 그랜드볼룸(104~105호)에서 진행된다. 공단 주관 세미나 13개, 고용노동부 주관 정책 세미나 4개, 안전보건 관계기관 주관 세미나 10개가 열릴 예정이다.

안전보건 세미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2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인재경영의 완성은 건강경영이다’, ‘산업기계 안전 선진화 방안’, ‘산업보건에서 직업보건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선진 안전한국 건설을 위한 안전문화조성방안’ 등 27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 관계단체, 학회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련학과 학생 등이 참석하며 세미나 발표내용은 참가자들이 학습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CD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 안전보건활동 우수

사례 발표대회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컨퍼런스센터와 E-홀에서 진행된다. 공단 9개, 간호협회 1개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수상기업의 영예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의 밤' 행사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이때, 최우수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으며 본상 수상 우수사례는 CD로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1대100 퀴즈대회

● 1대100 퀴즈대회는 7월 5일 오후 8시

50분부터 KBS 2TV 인기 프로그램 '1대100' 퀴즈대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년 7월 첫째 주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인 만큼 이에 맞춰 특집으로 방송된다. 1대100 출연인원 중 1인과 40인은 공단과 안전보건 관련단체에서 추천받았으며 '조심조심 코리아' 슬로건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출연한다. ㉮



Safety Message

〈조심조심 코리아〉 1분 릴레이 캠페인

Message 01



스쿨존 안전운전이 꿈나무 지키는 첫걸음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과 실수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미래가 그만큼 상처를 입고, 그만큼 어두워지는 것이지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안전 배려 지역입니다. 학교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뛰쳐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그 이하로 천천히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를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 스쿨존 30km 서행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희망을 지킵시다.

Message 02



스트레칭은 안전 작업의 밑거름

이봉주 전 마라톤 국가대표

●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달리기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대신 자칫 무리하거나 방심하면 오히려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저와 같은 전문 마라톤 선수도 충분한 준비운동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달리기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 전·후의 스트레칭은 피로누적을 해소시켜 작업능률도 올리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일상생활에서도 일터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YTN과 공동으로 명사들의 〈조심조심 코리아〉 1분 릴레이 캠페인을 5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주 1회 1편씩 제작하여 하루에 4회(07:50, 15:50, 17:50, 23:50) 방송한다. 공단과 YTN은 앞으로 우리 사회 저변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의성 있는 주제로 저명인사, CEO, 안전보건관계자, 직종별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과 인터뷰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터와 일상생활 속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명사들의 1분 캠페인을 올해 말까지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 편집자 주

Message
03



소중한 우리 아이 안전부터 알려주세요!

강지원 변호사

●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차조심해라, 불조심해라.” “다친다,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이죠. 그만큼 안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건설현장이나 작업현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나 놀이터나 공같은 곳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적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위험을 알고 주위를 살필 수 있도록 조기안전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항상 위험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만이 사고로부터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Message
04



안전장구는 내 몸 지켜주는 소중한 친구

김영호 전 펜싱 국가대표

● 최근 많은 분들이 다양한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반인들에게 스포츠는 즐거움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선수들에게 스포츠는 직업이고, 경쟁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는데요. 보호장비는 선수의 신체와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나 일터에서도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장구 착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귀찮고 불편하다고 착용을 소홀히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장구는 우리와 늘 함께 해야 할 소중한 친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 더하기 | 산재예방 달인

글 이환길 사진 안기성 | e-cube 스튜디오

산업재해 잡는 안전 호랑이, 현장을 지킨다

기지개를 한껏 켜고 현장으로 성큼 들어서 위험 요소들을 간단히 제압한다. 다부진 말투와 강한 인상, 폭발적인 안전 열정 앞에 세상의 모든 산재가 무릎을 꿇었다. 성난 호랑이 앞에 더 이상의 적수는 없다. 안전은 지금 그의 용맹함에 기립 박수를 보낸다.

(주)코오롱 인더스트리 유화부문 인천공장 성학수 환경안전그룹장



안전을 외친다 위험을 제압한다

“안전모 바로! 안전벨트 확인하고!”

공장 곳곳에 찌럼찌럼 울려 퍼지는 고함,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달려가 응징을 가한다. 호랑이 한 마리가 숲 속 가시덤불을 헤치며 포효하듯 그의 움직임에는 거침이 없다. 오늘도 현장은 그 포효로 인해 안전 군기가 바짝 들어섰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환경 안전 정보 수집부터 작업 현장 확인 점검, 개선 사항 순찰 등 하루 스케줄은 안전 하나로만 꽉 차여 있다. 회사 생활 24년 중 초기 10년을 현장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사고 사례를 직접 접해왔었기에 안전에 대한 집착은 실로 남다르다. “안전에 관한 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안전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머리와 말로만 내뱉는 안전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겠어요. 가슴으로 새기고 그에 따른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안전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특히 그는 사전 준비를 가장 중요한 안전요소로 손꼽는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수록 위험요인이 그만큼 고개를 숙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사전 준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다시금 강조한다.

“예전에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은 채 집사람과 등산에 나선 적이 있죠. 잘못된 정보 수집으로 심하게 고생을 했는데 한 번만 더 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사전 준비의 위력을 깨달았죠. 사전 준비는 곧 가장 튼튼한 예방입니다. 이는 인생에 필수 목록이기도 하죠.”

이렇듯 사전 예방에 대한 애착은 그의 적극적이고 화통한 성격에 힘입어 산불처럼 빠른 속도로 동료들에게 전도되기 시작했다. 현재 무재해 14배수를 지나 15배수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아니 15배수를 넘어 영원히 완전무결한 무재해 현장을 꿈꾼다.



무재해 꿈꾸는 호랑이 선생님

그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이끄는 안전 의식은 때때로 동료와 후배들에게 불호령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눈물이 찔끔 날 만큼 강한 호통으로 위험을 통제한다고, 안전에 관해서는 결코 너그러운 수 없다는 게 그의 철칙이다. 호되게 혼이 나고 나면 안전 의식이 한층 더 두터워진다고 관리팀의 김희수 사원이 안전 호통의 매력을 말해본다.

“호랑이 선생님이 따로 없답니다. 환경안전그룹장님만 떴다하면 현장은 100% 안전 장차 완료입니다. 문제가 보이면 딱딱 지적하면서 혼내시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현장 밖에서는 형이나 삼촌처럼 친근하고 유쾌하게 후배들을 돌볼 줄 아는 진정한 패남이시기도 하죠. 진심으로 동료를 돌보고자 하는 강한 애정이 느껴진답니다.”

김희수 사원의 말대로 성학수 환경안전그룹장의 안전 의식은 강한 동료애에서 비롯된다. 누구든 퇴사하는 순간까지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보인다.

이미 그 약속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켜지고 있다. 우선, 월 1회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속보와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를 다 운반아 전산을 통해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안전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차사고 공모’를 통해 실질적인 현장 문제들을 공유한다. 사고가 날 뻔했던 사례를 공모한 후 심사를 통해 매달 두 건씩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채택

Expert



된 제안 건에 대한 개선조치는 물론이다. 또, 환경안전보건품질 통합 경영시스템 구축과 실행을 위해 OHSAS18001, ISO14001, ISO9001을 인증 획득했으며, 환경안전품질 방침과 45개 통합규정을 제정하여 시스템을 관리한다.

보다 즐거운 안전 활동을 위한 안전 이벤트도 다양하게 기획한다. ‘직원 체력 측정’을 통해 체력에 맞는 운동요법을 제공하는가 하면, 시상금 100만원이 걸린 ‘안전환경퀴즈대회’를 통해 안전 상식 향상에 의지를 심어주었다. ‘소방기술 경진대회’나 ‘위험예지훈련 경진대회’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그의 안전 활동 이력은 무수하다. 또한, 산업재해예방유공 노동부장관상, 소방재청장상 등 산재관련 수상 경력 역시 안전에 대한 그의 열정만큼이나 화려하다.

안전 활동의 꽃, 비상대응훈련

무엇보다도 종목별 연 1회씩 실시하는 ‘비상대응훈련’은 안전 활

동의 하이라이트다. 비상대응훈련은 종합소방훈련, 위험물 누출 비상대응훈련, 밀폐 공간 비상대응훈련, 정전 비상대응훈련, 위험물 운송 비상대응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학수 환경안전그룹장이 직접 시나리오를 짜고 훈련을 지휘 통솔한다.

오늘은 종합소방훈련이 있는 날. 짙은 연막이 피어오르고 소집 발령과 함께 소방팀이 일사불란하게 집안에 나선다. 한쪽에서는 응급의료팀이 번개처럼 달려온다. 소방보호구부터 산소호흡기, 의료기기까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정확하고 빠른 살수로 화재를 진압하는 직원들은 최고의 스나이퍼다. 응급환자 역할의 직원은 배우급 연기로 훈련에 실감을 더해준다.

일촉즉발의 상황을 날렵하게 비집는 성학수 환경안전그룹장의 통솔력은 최전방에 나선 장군의 모습이다. 실수 없이 훈련을 이끌어가는 이들의 능숙함 덕에 이곳에서는 사고가 자라날 틈이 없겠다. 30분간의 훈련이 끝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각각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매진한다. 한 편의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본 듯 남겨진 감탄과 감동은 수그러들 줄 모른다. 성학수 환경안전그룹장은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인 훈련 준비는 물론, 더 좋은 시스템의 도입·개발을 통해 산재에 관한 한 철통 방어를 이어갈 것이라며 포부를 드러냈다. 또 이와 함께 동료들을 향한 응골진 당부 역시 잊지 않는다.

“어떤 이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일 것이고, 어떤 이는 귀한 자식 일 것입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본인과 가정에 남겨지는 불행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과 가족, 동료, 사랑하는 모두를 위해 사고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무재해 사업장 안에서 무재해 행복을 누리도록 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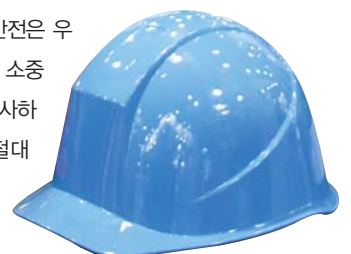
다시 한 번, 포효하듯 그의 목소리와 눈빛에 힘이 들어간다. 저 당당한 외침에 놀라 몰래 다가오던 산재 위험들이 강 건너 산 너머로 몽땅 줄행랑을 친다. (주)코오롱 인더스트리 인천공장에는 산재를 쫓는 안전 호랑이가 살고 있다. 🐯

Tip

성학수 산재예방 달인이 들려주는 안전 episode 안전이 선물한 두 개의 생명

오래전 동료의 사고를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추락하며 머리를 크게 다칠 뻔했는데 다행히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한 상태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찰과상뿐이었지만, 혹시 몰라 전신 CT 촬영을 진행했는데 우연히 폐암 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기에 바로 치료를 할 수 있었어요. 결국, 안전모 하나 덕분에 두 번이나 생명을 건진 셈이

죠. 이처럼 안전은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선사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Chuncheon

신나는 '몸짓의 향연' 안전을 말하다

‘조심조심 코리아 마임경연대회’

몸으로 표현하는 안전은 어떤 모습일까? 마임과 안전이 만나 색다른 퍼포먼스가 펼쳐졌던 ‘조심조심 코리아 마임경연대회’. 아무런 말없이 몸짓과 표정만으로 안전에 대한 소통이 가능했던 그 이색적인 현장을 소개한다.



마임, 안전을 만나다

‘2011 춘천마임축제’가 한창이던 지난 5월 28일, 춘천시 어린이회관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조심조심 코리아 마임경연대회’가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았다. 말없이 몸과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마임’이라는 특색과 ‘안전’이라는 주제가 만나 독특한 퍼포먼스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따라 나온 아이들도 연신 ‘까르르~’ 웃음을 지으며 신이 난 모습이다.

잠깐의 방심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을 묘사하거나 외출하기 전에 가스 밸브와 전기코드를 점검하는 모습, 올바른 산업기계사용법과 안전보호구 착용하는 모습 등이 마임으로 표현됐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가 아무런 말없이도 이렇게 잘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관객들 역시 마임이스트의 몸짓과 표정만 보고도 즉각적인 호응을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연대회의 열기는 달아올랐고, 관객들은 한 팀 한 팀에게 힘찬 박수와 환호를 아끼지 않았다. 춘천시 식사동에 사는 안재홍 씨는 “마임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느꼈다”며 “아이들에게 재미와 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줄 수 있어 좋았다”고 마임경연대회 관람 소감을 전했다.

모든 참가팀 공연에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뭘 잊은 거 없으세요?’란 주제로 각종 기계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연기한 대전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팀이 금상의 영광을 안았다.

공단 최대열 교육홍보이사는 “‘조심조심 코리아’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안전을 생활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심조심 코리아 마임경연대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도원과 춘천 MBC가 공동주관으로 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행사다. 지난 3월부터 공단의 ‘조심조심 코리아’ 안전문화 캠페인을 주제로 마임 콩트를 공모해 전국의 고등학생, 일반인, 단체에 이르기까지 12개 팀이 응모했으며, 이 중 7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이날 열린 경연을 펼쳤다. 🌍

Tip 춘천마임축제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춘천 마임축제’는 국내외의 100여개 마임극단과 공연단체가 참여해 몸, 움직임, 이미지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춘천의 대표적인 현대공연 예술축제이자 영국의 ‘런던 마임축제’, 프랑스의 ‘미모스 마임축제’와 함께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Mini Interview

마임 통해 ‘조심조심 코리아’ 메시지 전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도원 임태영 원장



1 안전을 마임으로 표현하는 경연대회를 한다는 발상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은 어렵고 딱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부터 안전을 실천하고, 위험을 보는 습관만 가지고 있으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조심조심 코리아 마임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기대효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춘천마임축제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많은 관람객에게 ‘조심조심 코리아’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마임경연대회는 동영상으로 편집해 각종 교육과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함으로써 근로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전달하고,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3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강원지도원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한 청정강원, 숲과 서비스 일터에서’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안전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을 3대 중점 업종으로 선정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재해예방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은 지킬박사? 혹은 하이드 씨?

직장 내 폭력으로 매년 400명 이상 재해발생

직장 폭력으로 멍드는 가슴

「한 사람은 학식도 높고 자비심이 많은 의사다. 또 한 사람은 살인도 서슴지 않는 악당이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이 결국 한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승우 주연의 뮤지컬로 유명해진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 씨〉의 내용이다. 소설이나 영화 속이나 등장할 것 같은 이런 이중인격자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게 될 때가 있다. 승객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 돌변해 운전사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로에서 뽀뽀맞은 분필이를 부하 직원에게 해대는 직장 상사가 그들이다.

직장 폭력(Workplace Violence)이란 직업과 관련된 상황 또는 환

경에서 물리적 공격, 욕설, 위협 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고를 말한다. 대부분 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직장 폭력은 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출근하기 싫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하직원이 있다면 그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범죄자인 셈이다.

선진국에서는 직장 폭력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장 내 폭력이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회사 전체의 근무 환경과 생산성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직장 폭력에 대한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매년 4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직장 내 폭력으로 재해를 당하고 있다.

종거나 혹은 나쁜거나-두 얼굴의 손님들?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장 폭력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을까? 직장 폭력사례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택시·버스 등 자동차 운전 종사자가 21.8%로 가장 높고, 경비원 등 건물관리 및 관



런 종사자(17.4%), 요양보호사와 같은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4.0%), 단순 노무 종사자(3.9%), 간호사 등 간호 및 조산전문가(2.7%) 순으로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일까?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를 분석해 본 결과, 외부고객이 50.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직장 동료 11.9%, 상사 6.2% 순이다.

직장 폭력 피해자들의 직업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대부분 고객을 비롯해서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대하거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바늘도둑, 소도둑으로 만들지 말자!

직장 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다. 심할 경우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기가 어렵고 설사 직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렵다. 국내의 경우 정신적 치료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주변 관계자들의 노력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재해든 예방이 중요하듯 직장 폭력 또한 예방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책임자, 동료, 고객 상호 간에 폭력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말이나 욕설, 인격적인 모독을 느끼게 하는 말은 자연히 삼가게 될 것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다. 폭력도 마찬가지다.

직장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아무리 사소한 경우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 시 불이익이나 보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직장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터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전쟁터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재해자	262	342	469	486	426
증감	·	80	127	17	-60
증감율(%)	·	30.5	37.1	3.6	-12.3





깨끗한 세상을 위해 오늘 더 안전하게

신경택 환경미화원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이 아름답기만 하면 좋으련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문명이 발달할수록 버려지는 것들도 넘쳐난다. 하지만 쓸모없어 밖에 내어둔 쓰레기들을 아무도 거두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는 안전한 생활도 금세 빛을 잃고 말 것이다. 그래서 신경택 환경미화원은 자신이 하는 일이 '봉사'라고 여긴다.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그가 있기에, 이 시간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호흡할 수 있다.





새벽같이 시작되는 동네 한 바퀴

신경택 환경미화원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그의 출근 시간은 오전 다섯 시. 요즘이야 해가 길어 긴긴 어둠을 헤치며 일하는 일은 줄었다.

“새벽에 일을 시작하면 오후 한두 시쯤에는 끝납니다. 휴일이 지난 다음인 월요일, 화요일에는 일이 비교적 많은 편이지요.”

신경택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 성광용역은 부천시 원종동과 고강동 일대의 음식물·생활·재활용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생활쓰레기 담당 세 팀 중 한 곳의 팀장 역할을 맡고 있다. 1988년에 입사해 올해로 벌써 경력 24년 차. 강산이 두 번 바뀌고도 남을 만큼 이 일에 종사해온 그는 지난 세월 우리나라 생활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한 산 증인이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봉투에 담아둔 쓰레기를 압축차량에 넣으면 그만이지만, 예전에는 수작업이 많았거든요. 덕분에 요새는 장기근무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회사에도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실제로 이곳 성광용역에는 그와 같이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직원들뿐만 아니라, 정년인 58세 이후에도 다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속해서 업을 이어가는 직원들이 여럿 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관리가 필수. 특히나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소소한 사고들을 겪을 수 있는 환경미화원은 무엇보다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자주 겪는 사고가 손을 다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들어있다’고 메모를 붙여서 넣어놓은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심코 봉투를 집었다가 손이 베일 때가 있죠.”

그래서 그는 봉투를 수거할 때에도 되도록 매듭이 지어진 끝부분을 잡는다. 다소 일하는 속도가 더뎠을 수 있지만, 안전한 생활이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매월 두 번씩 시행되는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란 마음으로

젊은 시절, 외식업에 종사하던 그가 환경미화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 서울에서 부천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다. 처음에는 잠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일에 몰입하며 근무하다 보니 그 잠깐이 어느새 평생이 되다시피 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요령 없이 힘만 믿고 쓰레기를 옮기다가 허리를 잠깐 삐끗한 적이 있어요. 그 때부터는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면 두 사람 이상이 함께하고, 요즘 같은 땃별에는 회사에서 챙겨준 나트륨과 얼음물을 마시면서 탈진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체력을 조절 하죠. 차에 타고 오를 때도 조심하고요. 덕분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이제는 의욕이 넘치는 신입들에게도 차분하게 조언을 건네는 명실공히 베테랑이 된 신경택 환경미화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청소차를 잠깐 세워두는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고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주민을 만날 때면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신의 직업에 대한 생각도 더욱 깊어진 그다.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 일을 계속하기 힘들니다. 아무도 환경미화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의 생활이 엉망이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세상을 위해 내가 봉사한다’ 고 마음먹고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찾아오는 스트레스도 금방 풀려요.”

더불어 팀장으로서 다른 동료들을 챙기는 것도 그의 일이다. 근무 시작 전에는 안전한 작업방식을 공유하고, 더불어 직원들의 마음에 근심이 없는지 민감하게 체크하기도 한다. 안전은 언제나 근로자들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까닭이다.

“일을 마치고 나면 회사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건강관리도 하고, 바둑도 두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그래요. 제가 즐겁게 일해야 능률도 오르고,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일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자부심을 갖고 부지런히 일하는 그가 있기에,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은 하루. 앞으로도 그가 더 안전하게 일하며 오랫동안 깨끗한 세상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슴으로 번져온다. 🍀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 일을 계속하기
힘듭니다.

아무도 환경미화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의 생활이

엉망이 될 게 뻔하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세상을 위해

내가 봉사한다’ 고

마음먹고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찾아오는

스트레스도 금방 풀려요.





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

CASE 1 근골격계질환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리다 부상

CASE 2 베임, 찢림



쓰레기봉투 속 깨진 유리에 베임

CASE 3 떨어짐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짐

안전보건 준수사항

- 바닥에 물기나 빙판 등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경사로, 경계턱, 바닥 돌출물 등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청소차량 후미 발판이나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면 안 된다.
- 무거운 쓰레기봉투는 2명이 같이 든다.
- 쓰레기봉투 내에 깨진 병, 날카로운 철판 등 베일 위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젖은 손으로 작업하지 않는다.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한다.
- 음주상태에서 작업하거나 작업 중 흡연하지 않는다.
- 작업 중 틈틈이 짧은 휴식을 하고 물도 조금씩 자주 마신다.
- 급하게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않는다.
-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예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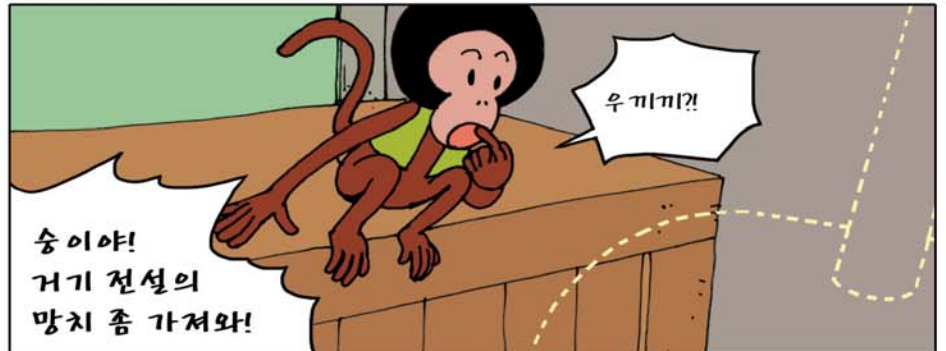


바람의 작업자

연재만화 7

거푸집동바리 작업안전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나라!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심일터’ 374개의 노·사·민·정 관련기관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산업재해 없는 안심일터, 좋은 일터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안심일터 추진본부는 중앙 및 16개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안전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보건 제도개선, 교육, 범국민 캠페인 등의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cting

실천 곱하기



44	화제의 명예감독관
48	생활안전 플러스
50	무재해 실천일지
54	건강 365
56	함께 배우는 스트레칭
58	중대재해사례 건설업
60	중대재해사례 제조업
62	중대재해사례 서비스업



장마철의 숨은 복병, 감전사고 예방법

- 전기기기 및 배선의 절연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에 전선으로 연결시킨다.
-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한다.
-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는다.
- 수동 개폐기(차단기)의 퓨즈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정격 퓨즈를 사용한다.
- 자동 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한다.
- 불량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 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배선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감전된 사고자 주변의 전선 또는 기기의 전원 스위치를 차단함으로써 2차 재해를 예방한다.



실천 곱하기 | 화제의 명예감독관

글 유성원 사진 안기성 | e-cube 스튜디오

단단한 강철에
달콤한 안전을
수놓다



유니온스틸(주) 부산공장 주해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여든 살의 노모가 쉰 살의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라며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처럼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조그만 위험의 소지마저 철저히 예방코자 노력하는 주해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꼼꼼히 챙기는 그가 있기에 유니온스틸 부산공장에는 언제나 시원한 안전보건 바람이 불고 있다.

캔디는 안전을 신고

“도대체 노조에서 왜 그것도 못 막아줍니까?”

지난 2003년, 당시 노조위원장을 맡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겸직하고 있던 그에게 근로자들의 항의가 쇄도했다. 회사의 안전점검에 적발된 근로자들의 불만이 노조위원장인 자신에게 향한 것. 그때만 해도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약했다.

“참 답답했죠. 안전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안전의식을 바꿔 놓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습니다.” 그는 적발 위주의 안전점검에서 자율안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선 안전조회를 만들어 작업현장별로 근무 시작 전에 건강 체크부터 불안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 작업진행사항 등을 항상 꼼꼼히 점검하게 했다. 사물함에 ‘안전 다짐서’를 가족사진과 함께 붙여 안전이 가족의 행복이라는 인식도 심어주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환경안전팀 합동으로 1년에 2차례 현장을 순회하면서 음료수, 캔디 등을 지급하며 안전활동을 격려하는 ‘안전 캔디데이’도 만들었다. 근로자들에게는 안전활동이 벌을 주려는 조치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끊임없이 인식시켰다.

이렇게 노조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이 시작되자 하나둘씩 근로자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안전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캔디처럼 행복하게 해준다는 쪽으로 의식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한 번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끊임 없이 강조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근로자들을 움직였죠. 지금은 근로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정도로 자율안전이 정착되었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서 그런 점이 가장 큰 보람이죠.”



SAFETY
CANDY
DAY



위험요소를 원천 봉쇄하라!

안전의식이 어느 정도 정착되자 주해식 명예감독관은 기계설비 안전으로 눈을 돌렸다.

유니온스틸은 아연도금강판, 컬러강판, 고기능성강판 등을 만드는 표면처리강판 전문기업이다. 원재료를 고객사에 맞게 압연하는 작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롤과 롤 사이에 감김·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처음에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다고 판단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위주로만 접근했지만,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매년 발생했다. 아무리 근로자가 주의를 기울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감응식 방호장치를 도입했다.

롤과 롤 사이에 안전장치를 설치해 손이 롤러에 말려들어 갈 수 있는 여지를 없앴고, 그래도 혹시 있을 사고에 대비해 안전바를 건드리면 기계가 멈추는 장치를 도입하는 등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자동 이물질 제거 장치도 도입해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했던 일을 버튼 하나면 자동으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공정에 이런 안전장치 도입이 완료되자 1년에 3~4건 발생하던 재해가 2010년 9월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개선됐다.

이와 함께 사고가 난 기계 앞에는 사고이유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게시해 놓은 '안전사고사례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는 경각심을 높이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이런 안전장치를 도입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도입 비용과 생산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습니다. 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사가 함께 힘을 모은 셈이죠.”



365일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직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힘쓰는
주해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앞으로도 유니온스틸 부산공장의 안전은 어머니와 같은
그의 사랑과 열정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다.





3 - 3 - 3

어머니의 마음으로 근로자를 보듬다

유니온스틸 부산공장의 또 하나 특징적인 안전활동으로 3·3·3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은 입사 3년·전환근무 3년·정년퇴직 3년 미만자는 산재취약계층으로 분류해 특별히 신경을 더 쓰는 제도이다. 특히 신입사원은 노란색 안전모를 쓰게 해 선배 근로자가 보다 세심하게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 채용자는 5일간이나 안전교육을 받는다.

안전수칙, 안전다짐, 사고시 대응방법 등이 적힌 안전수첩도 매년 지급해 안전을 생활화하고 있다. 특히 잠재위험 발굴점검과 회의를 매주 1회 실시하고, 안전점검도 노사 합동점검, 타부서 안전점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반복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바로 무재해 사업장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율안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한 그는 작년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금연캠페인, 금연서약과 금연 도우미 활동 등 금연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흡연율을 49%에서 36%로 낮추는 성과도 얻었다. 또 스트레칭 표지판, 중량물 표지판 부착 등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40세 이상의 근로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2년에 1번씩 무료로 종합검진을 받도록 배려했다.

“안전보전은 산소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항상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조그마한 위험요소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을 들어주고, 때로는 엄한 지식을 때로는 어머니처럼 푸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명예감독관이 되고 싶습니다.”

365일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직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힘쓰는 주해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앞으로도 유니온스틸 부산공장의 안전은 어머니와 같은 그의 사랑과 열정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다. 🌱

여름철 건강 지키는 식.품.상.식.

최근 유럽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발생하면서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되고,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쳤는지 완전히 믿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식품 구매법과 보관법 그리고 세척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선한 식품 구매법

건강한 식사는 소비자의 장보기에서 시작된다. 싱싱한 재료를 선택해야 하지만 모양이나 색이 완벽한 것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고구마의 껍질이 인위적일 정도로 붉게 보인다면 인산염으로 착색했을 가능성이 있다. 갈색으로 변하기 쉬운 우영·연근·도라지가 지나칠 정도로 희면 아황산염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과일 표면이 유난히 반짝반짝 광이 나면 왁스 코팅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눈으로 보고 안전한 식품을 고른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믿을 만한 장소에서 품질을 인증 받은 제품을 선택하면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품을 사거나 생산·포장 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한다. 생산 이력제를 도입하는 업체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



곰팡이 막는 식품 보관법

안전한 식품을 구매해도 너무 오래 보관하거나 잘못 보관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세균에 오염된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일으키는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생선의 세균은 온도가 낮은 물속에서 생존하던 것으로 돼지고기나 쇠고기의 미생물과 달리 온도가 낮은 냉장고에서도 활동한다. 그래서 생선은 구매한 날 바로 요리해 먹는 것이 좋다.

채소는 랍과 비닐봉지·신문지·키친타월을 활용해 냉장 보관하면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 시금치는 젖은 신문지에 싸서 비닐봉지에 넣고, 깻잎은 젖은 키친타월로 줄기를 감싸 비닐봉지에 넣는다. 흙 묻은 우엉, 대파는 씻은 뒤 보관하기 좋게 잘라 비닐봉지에 넣는다. 과일은 종류별로 비닐봉지에 담고 입구를 묶어 냉장고에 보관한다.

장마철에는 곡류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한다. 습도는 60% 이하, 온도는 10~15℃ 이하에서, 최대한 온

도 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한다. 옥수수나 땅콩을 보관할 때는 껍질째로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식품을 보관하는 냉장고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냉장고에도 세균이 서식하므로 2~3개월에 한 번 정도 세제를 사용해 씻은 뒤 살균소독제를 3백배 희석한 물로 소독하는 것이 위생적이다. 또한, 냉장고에 음식물을 가득 넣어두면 냉장·냉동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음식물이 상할 수도 있다. 냉장 보관하는 음식물은 뚜껑을 덮어 두어야 세균의 교차오염을 막는다.

잔류 농약 없애는 건강 세척법

먹을거리는 먹기 전에 손질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일과 채소류는 수돗물에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다시 씻는 것이 가장 좋다.

〈딸기〉는 물에 1분 정도 담근 뒤 흐르는 물로 30초 정도 씻어준다. 꼭지 부분은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먹지 않고 남기는 것이 좋다. 〈포도〉는 송이째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행궤 먹으면 안전하다. 〈사과〉는 물에 씻거나 행궤 등으로 닦아서 껍질째 먹어도 좋다. 다만 사과 꼭지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는 농약이 잔류하므로 이 부분을 칼로 베어내고 먹으면 된다. 〈오렌지〉는 손으로 만져 보아 반짝거리는 것이 묻어나는지 확인한다. 왁스가 발라졌을 경우 소주를 묻혀 왁스를 닦아낸 뒤 먹기 전에 흐르는 물에서 껍질을 깨끗이 씻는다. 〈바나나〉는 수확한 뒤 줄기 부분을 방부제에 담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줄기 쪽부터 1cm 지점까지 잘라내서 버리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잔털이나 주름이 많은 〈갯잎〉이나 〈상추〉는 농약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채소보다 충분히 씻어주는 것이 좋다.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잔류 농약이 대부분 제거된다. 〈파〉는 뿌리보다 잎에 농약이 더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 시든 잎과 함께 외피 한 장을 떼어내 버리고 물로 씻는 것이 좋다. 〈배추〉와 〈양배추〉는 농약이 직접 닿는 바깥쪽의 잎에는 농약이 잔류할 수 있다. 배추의 겉잎을 두세 장 떼어내고 흐르는 물에 잘 씻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오이〉는 흐르는 물에서 오이 겉면을 스펀지 등으로 문질러 씻는다. 그런 뒤 굵은 소금을 뿌려서 도마에 대고 문지르고 다시 흐르는 물에 오이를 씻으면 된다. 〈고추〉는 끝 부분에 농약이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어 먹으면 된다. 🍋

유럽 위협하는 식중독 사고 예방법

손 깨끗이 씻고 식품 74℃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후 섭취

최근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장출혈성대장균은 치명적인 독소인 '베로톡신'을 만들면서 심한 복통이나 피가 섞인 설사, 빈혈, 신장 손상 등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이다. 가금류의 대장과 대변에 머물다 식품과 물을 통해 인간에 오염된 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된다. 반추동물인 소의 대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채소를 흐르는 물로 세 차례 이상 철저히 씻어야 한다. 특히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가열이나 조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육류, 샐러드 등을 먹거나 손을 제대로 씻지 않은 경우 사람과 사람 간에도 전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품은 74℃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섭취해야 한다. 특히 균에 오염된 동물의 배설물이 손을 통해 입으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놀이터 등 야외에서 놀고 왔을 때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식약청은 대다수의 대장균은 일정 온도 이상에 가열하면 죽기 때문에 음식을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면 일정부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IFE
SAFETY
PLUS⁺

실천 곱하기 | 무재해 실천일지

글 유성원 사진 안기성 | e-cube 스튜디오

‘꼼꼼’ 안전으로 ‘명품’ 현장 만든다





삼 성 중 공 업 (주)

명 레 일반 산업 단지 조성 공사 현장

가슴이 탁 트이는 바다와 신선한 해산물, 생동감 넘치는 사람들까지. 뜨거운 여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매력 넘치는 도시 부산에는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 공사가 한창이다. 철저한 안전과 넘치는 열정으로 '명품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삼성중공업(주) 명레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조그만 위험요소도 놓치지 않는다

6월 중순에 찾은 이곳 명레 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 공사 현장에는 굴착기 등 중장비 수십대와 덤프트럭 등이 투입돼 흙을 파고 실어 나르느라 분주했다. 산을 깎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면적 규모만 156만㎡(47만평)에 1일 출력 인원만 150명이 넘는 정도로 대규모 공사이다.

이곳 현장은 아무래도 공사의 절반 이상이 토공작업이다 보니 장비에 의한 사고가 가장 큰 재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안전 대책이 어느 현장보다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우선 기본적으로 후방감시카메라, 경광등, 협착방지봉 등의 안전장치가 100% 설치되어 있는 건설기계만 입고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모습은 덤프트럭으로 성토를 하는 곳에 꽂힌 깃발이었다. 대부분의 건설 현장은 성토 단부면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하는 데 반해 이곳 현장은 노란 깃발이 꽂힌 성토 단부면 5m 앞에서 덤프트럭으로 성토한 뒤 도저로 푸싱을 하고 있었다.

“저희 현장은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날에 위험성평가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덤프트럭으로 성토를 하다가 과도한 후진으로 전복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돌출 시켰습니다. 여러 방법을 찾다가 이 방법이 나왔고, 실제로 현장에 적용시켰죠. 그만큼 저희 현장은 조그만 위험요소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소통하고

‘안전도면계획서’에 의한 작업 진행도 눈에 띈다. 안전도면계획서란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그것을 도면화 시키는 것이다. 누구나 안전도면계획서를 보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도면과 같이 세밀하게 작성한다. 그리고 도면계획서가 완성되면 본사 주관 하에 현장에서 발표하고, 계획서 내에 나오는 잘못된 점은 다시 수정해 최종적으로 현장에 적용시키는 제도이다.

이처럼 형식적이 아닌 규정과 원칙에 의해 세심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공사 진행이 아무래도 더디지고 현장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그래서 송춘훈 소장이 꺼내 든 해결책은 ‘믿고, 신뢰하고, 소통하는 현장 만들기’이다.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도 챙겨줄 정도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김병수 안전과장은 “소장님이 직접 불만을 들어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면서 근로자들도 믿고 따르고 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송춘훈 소장은 “소통과 신뢰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현장이나 다름이 없다”며 “그래서인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어려움이나 불편함 없이 이야기해주고 또 그것을 해결해주는 소통을 밑바탕으로 현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수근로자 포상제도 시행과 주기적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 안전의식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다.

“관리자가 아무리 밀착관리 하더라도 결국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은 근로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 없이 현장을 이끌어 준 직원과 협력사 직원 그리고 모든 근로자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 1 대부분의 건설 현장은 성토 단부면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는 데 반해 이곳 현장은 노란 깃발이 꽂힌 성토 단부면 5m 앞에서 덤프트럭으로 성토한 뒤 도저로 푸싱을 한다. 덤프트럭으로 성토를 하다가 과도한 후진으로 전복 될 위험성을 없애기 위함이다.
- 2 위험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그것을 도면화 시키는 ‘안전도면계획서’. 누구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도면과 같이 세밀하게 작성되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최종적인 안전도면계획서를 완성시켜 현장에 적용한다.
- 3 옹벽 작업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작업에는 안전고리를 걸어 작업하는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지키며 작업이 이뤄진다.



양보 없는 원칙으로 명품현장 만든다

지난해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이곳 현장은 현재 2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며 내년 10월말 공사 완료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현재 이곳 현장의 가장 큰 목표는 역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무재해를 달성하는 것이다. 안전 위에 세워진 명품 산업단지가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다.

송준훈 현장소장은 “공사가 완료되면 첨단산업과 일반 제조업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가 될 것”이라며 “용지 부족으로 타지로 나갔던 부산지역 향토기업들이 되돌아와 부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삼성중공업 본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KOSKA18001 인증취득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안전에는 예외란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현장을 운영하다 보면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해법들을 고민해야 할 경우가 많죠. 때로는 원칙보다는 응용된 해법들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원칙만을 적용한다’가 안전에 대한 저의 철학이자 소신입니다.”

안전에 관한 한 어떠한 경우도 예외 없이 원칙을 지키는 꼼꼼한 현장, 서로가 소통하며 즐겁고 편하게 일하는 현장, 후세에 길이 남길 수 있는 명품현장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삼성중공업(주) 명례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은 무재해 실천의지로 넘쳐나고 있다. 6

안전에 관한 한 어떠한 경우도
예외 없이 원칙을 지키는 꼼꼼한 현장,
서로가 소통하며 즐겁고 편하게 일하는 현장,
후세에 길이 남길 수 있는
명품현장을 만들기 위해



4 건설기계에는 후방감시카메라, 경광등, 협착방지봉 등의 안전장치가 100% 설치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를 전문으로 점검하는 회사에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다.

5 현장소장을 비롯해 안전관리자와 현장 근로자 등 이곳 현장은 항상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믿고, 신뢰하고, 소통’하는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여름철 자외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내리쬐는 햇볕이 다가워지는 여름이 오면서 자외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외선은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려 피부 노화를 진행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자외선이 유독 심한 여름에는 갖가지 피부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자외선 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지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자외선 차단제 선택요령

SPF(자외선 B 차단지수) : 등급에 따라 2부터 50까지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 시간이 길어진다.

PA(자외선 A 차단지수) : 등급에 따라 PA+, PA++, PA+++로 표시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 A의 차단 효과가 크다.

피부 보호를 위한 첫걸음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A와 B로 나뉜다. 파장이 가장 긴 자외선 A(UVA)는 피부를 깊게 만든다. 자외선 B(UVB)는 중간 정도의 파장으로 피부에 홍반(외적, 내적인 자극에서 의해 발생하는 피부 반응)이나 물집을 만드는 일광 화상을 일으킨다.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며, 피부 노화나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강한 햇볕을 막아주어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피부 보호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다. 흔히 우리가 '선크림'이라 부르는 것이 자외선 차단제이다. 이를 사용하는 것은 피부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계절 내내 노출되는 부위에 발라주는 것이 좋다. 특히 요즘처럼 햇볕이 강렬한 시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사용해 피부 손상을 예방해야 한다.

외출 30분 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심사를 받은 기능성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목적과 차단지수, 피부 민감도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사용한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는 손이나 의류의 접촉과 땀 등에 의해 닳아 나가므로 2~3시간 단위로 덧발라 주어야 한다. 피부에 피막을 입히듯 골고루 꼼꼼히 바르고, 바른 즉시 햇빛에 나가면 증발하므로 외출하기 30분 전에 발라 완전히 흡수되도록 한다. 과다하게 사용하면 모공이 막히고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사용하고, 외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 낸다. 챙이 큰 모자, 선글라스, 양산 등을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 강도는 맑은 날의 50% 정도 되므로 노출되는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준다.

장소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도 달라진다

SPF(Sun Protection Factor)는 자외선 B 차단지수를 말하는 것이다. SPF의 숫자는 2부터 50까지 있으며 50 이상의 제품은 50+로 표시된다. SPF의 숫자는 1씩 증가할 때마다 20분 정도의 자외선 차단 시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SPF 20인 제품을 사용하면 6시간 40분(20×20분=400분) 정도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지속된다. 하지만, 사용 시기와 장소, 땀으로 흘러내리는 제품의 소실 정도에 따라 자외선 차단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PA(Protection grade of UVA)는 자외선 A(UVA)를 차단하는 정도를 말한다. 등급은 PA+, PA++, PA+++로 표시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 A의 차단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 야외에서 간단한 스포츠를 하거나 레저를 즐길 때는 'PA+, SPF 10' 전후 제품, 휴양지나 바닷가에서 스포츠를 즐길 때는 'PA++, SPF 10~30' 제품, 고지대나 적도 지대를 여행할 때는 'PA+++~++++, SPF 30' 이상 제품, 물놀이할 때는 'PA+++~++++, SPF 30' 이상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

TIP

천연팩으로 지친 피부에 활력을 심어주자!

검게 그을린 피부를 하얗게 가꿔주는 감자팩

감자팩은 미백효과가 뛰어나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얼굴에 거즈를 올린 뒤 갈아놓은 감자를 밀가루에 섞어서 얼굴에 평평히 펴준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차가운 상태에서 사용해도 좋다. 거즈가 없을 때에는 감자즙을 화장솜에 적셔 얼굴에 올려놓아도 된다.

붉게 달아오른 피부에 열을 내려주는 오이팩

오이팩은 피로회복, 진정, 미백과 보습 효과가 뛰어나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해 주는 효과가 있다. 껍질을 벗겨 낸 오이를 갈아서 밀가루를 섞어 사용하거나 얇게 썬 오이를 직접 피부에 올려주면 된다. 오이팩은 붉게 달아오른 피부의 화끈거리는 열기를 식혀주고 피부를 청결하게 해준다.

피부노화를 예방해 주는 와인팩

포도를 숙성시켜 만든 와인은 기미, 주름,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포도 껍질과 씨에 풍부한 폴리페놀은 젊은 세포의 생성을 촉진해 피부노화를 예방한다. 와인팩은 얼굴에 거즈를 덮고 화장솜에 충분히 적신 와인을 얼굴 위에 골고루 발라 주면 된다. 거즈가 마르면 화장솜을 다시 와인에 적셔 피부 결을 따라 닦아내고 미지근한 물로 세안한다.

여름철 피부 관리 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꼼꼼한 세안으로 노폐물 제거

땀을 많이 나는 여름에는 세균 번식이 쉬우므로 꼼꼼한 세안으로 청결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세안을 하지 않을 경우, 노폐물이 피부에 그대로 쌓이게 되면서 모공이 넓어지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섭취

더운 날씨 탓에 실내에서는 보통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습한 온도를 조절하는 에어컨은 피부를 거칠고 건조하게 할 수 있다. 때문에 수시로 물을 자주 마셔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제철과일·채소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여름철 피부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따뜻한 수건으로 각질제거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시고 물기가 흐르지 않도록 꼭 짠 다음, 얼굴에 얹는다. 마사지와듯이 가볍게 10분 정도 주물러주면 각질제거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후에는 차가운 스킨을 화장솜에 묻혀 마무리한다. 수건은 전자레인지 사용해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도 방법이다.

목을 비틀면서 몸통을 곱히는 용접작업자를 위한 스트레칭



Stretc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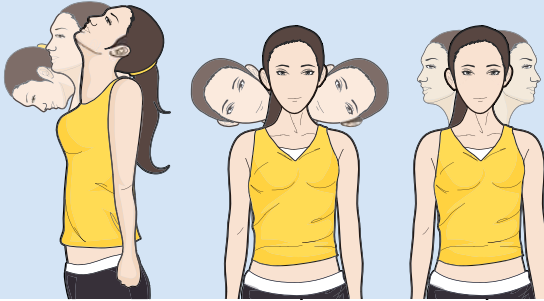


어느 날 베란다를 보니 그동안 신경 못 썼던 화초들이 제법 자라고 있었다. 여분의 화분을 사서 흙을 담고, 잘 자란 화초를 나누어 심어 줬다. 한 시간 정도 화분을 정리하고 나니 허리도 아프거니와 목에 통증도 느껴지기 시작했다. 평상시에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런데 온종일 앉아 고개를 숙이고 용접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지 않는다면 서서히 찾아오는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목을 돌릴 수도, 팔을 어깨 위로 올릴 수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휴식시간이나 가벼운 통증이 발생 시 뭉친 근육을 바로 풀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이 좋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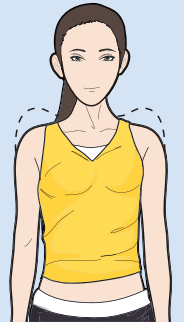
1 목 스트레칭

- ①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 ② 목을 앞뒤, 좌우, 옆으로 천천히 돌리고 10~15초 정도 유지한다.
- ③ 천천히 실시해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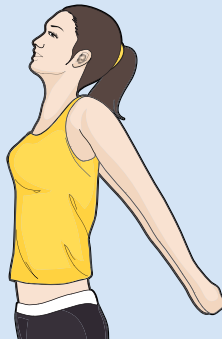
2 어깨 올리기

- ①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 ② 허리를 세우고 팔에 힘을 뺀 상태에서 어깨를 머리 쪽으로 끌어 올린다.
- ③ 10~15초간 유지 후 팔에 힘을 뺐다가 반복 실시한다.



3 가슴 스트레칭

- ①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 ② 두 팔을 등 뒤에서 깎지 끼고, 가슴을 펴준다.
- ③ 자세가 고정되면 10~30초간 유지한 후 반복 실시한다.



4 어깨 스트레칭

- ①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 ② 한쪽 팔을 가슴 쪽으로 당겨준다.
- ③ 다른 팔로 한쪽 팔을 고정하고 당겨준다.
- ④ 자세가 고정되면 10~30초간 유지한 후 쉬었다가 반대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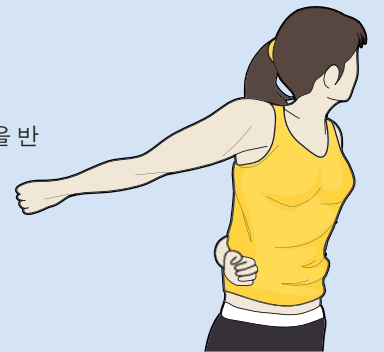
5 어깨 스트레칭

- ①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 ② 두 손을 머리 뒤로 깎지 낀 후에 천천히 고개를 뒤로 넘겨준다.
- ③ 이때 팔꿈치가 앞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④ 자세가 고정되면 10~30초간 유지한 후 쉬었다가 반복 실시한다.



6 팔 크게 돌려주기

- ①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 ② 한쪽 팔을 고정된 벽에 대고 몸을 반대쪽으로 돌려준다.
- ③ 숨을 멈추지 않고 자세를 10~30초간 유지한다.
- ④ 반대방향으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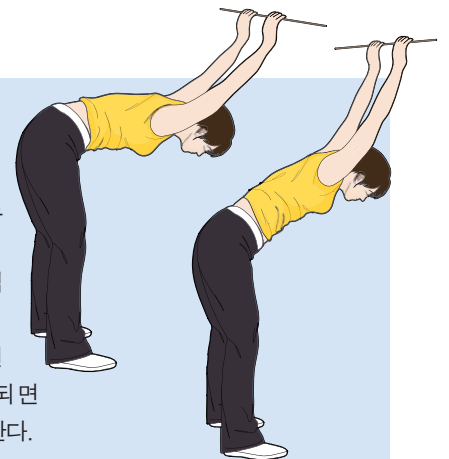
7 가슴 스트레칭

- ①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 ② 수건을 두 손으로 잡고 앞에서 뒤로 천천히 넘겼다 가져온다.
- ③ 동작을 천천히 하고 반복 실시한다.



8 등 스트레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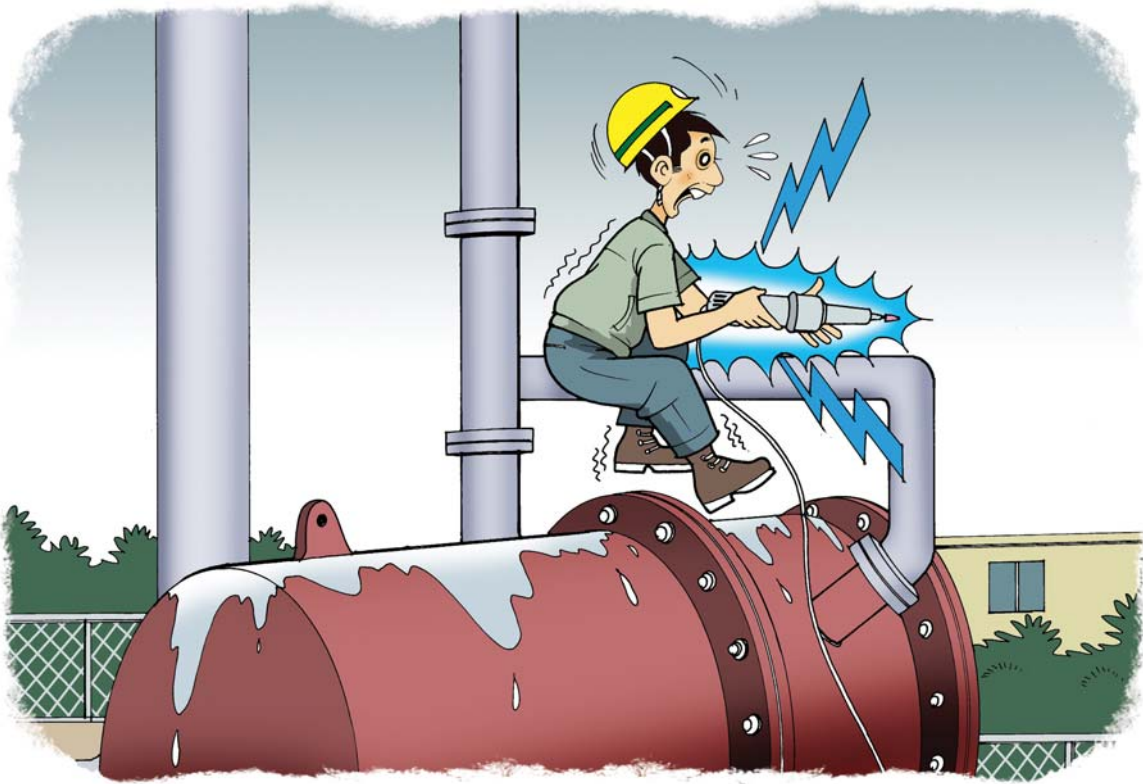
- ① 다리를 어깨너비로 안정적으로 벌리고 선다.
- ② 창문틀, 혹은 책상과 같은 안정적 인 지지대를 두 손으로 잡는다.
- ③ 천천히 몸을 아래로 숙인 후 안정적인 자세가 되면 10~3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비오는 날의 감전사

누전된 핸드그라인더를 잡다가 감전되어 사망

이번 사례의 가장 큰 재해 원인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비가 온 직후여서 조금만 누전되어도 사람에게 치명적인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장마철이 다가온 요즘, 각 사업장에서는 감전재해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핸드그라인더 건네받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

“이제야 비가 멈췄네. 그럼 다시 작업해볼까.”

“다들 빗물에 젖은 장비는 없는지, 물이 고인 곳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해.”

지난 5월,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 한 석유정제 모듈 배관설치 현장에서 오씨와 동료들은 작은 배관에 구멍을 뚫어 밸브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쪽에 핸드그라인더 있으면 좀 줘.”

“이거 빗물에 젖어서 그런지 약간 전기가 통하는 거 같으니 다른 걸로 가져올게.”



“됐어~ 금방 끝나는 작업인데 뭐. 으으으~ 악”

“오씨, 괜찮아? 정신 차려봐!”

오씨는 동료에게 핸드그라인터를 건네받는 순간 감전되어 쓰러졌다. 사고 직후 동료들이 오씨를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누전에 의한 감전 예방대책 없어

재해 당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면서 작업장 곳곳의 관련 장비들이 빗물에 젖어 있었고, 핸드그라인터 역시 장시간 비에 젖어 절연저항이 낮아졌다. 오씨도 땀을 많이 흘려 인체저항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핸드그라인터를 잡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후 핸드그라인터의 절연저항을 측정한 결과, 100MΩ 이상으로 기준치(0.2MΩ) 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아 사고 당일 빗물이 핸드그라인터에 침투하면서 내부의 절연상태가 취약한 곳을 통해 일시적으로 누전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지전압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전기기계·기구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 접속해야 하나 누전차단기가 아닌 배선용차단기에만 접속했다. 또 접지를 실시해야 하나 접지형 콘센트 접지극이 연결되지 않아 접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재해자가 작업을 실시한 장소는 주변이 금속체로 둘러 쌓여 있고 비까지 내린 후여서 조금만 누전되어도 치명적인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장마철이 다가온 요즘,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보다 철저한 대책과 개인보호구 착용에 더욱 완벽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재해자 작업 위치



핸드그라인터 전원이 인출된 가설 분전반



핸드그라인터와 연결된 콘센트의 접지극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동형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에 접속해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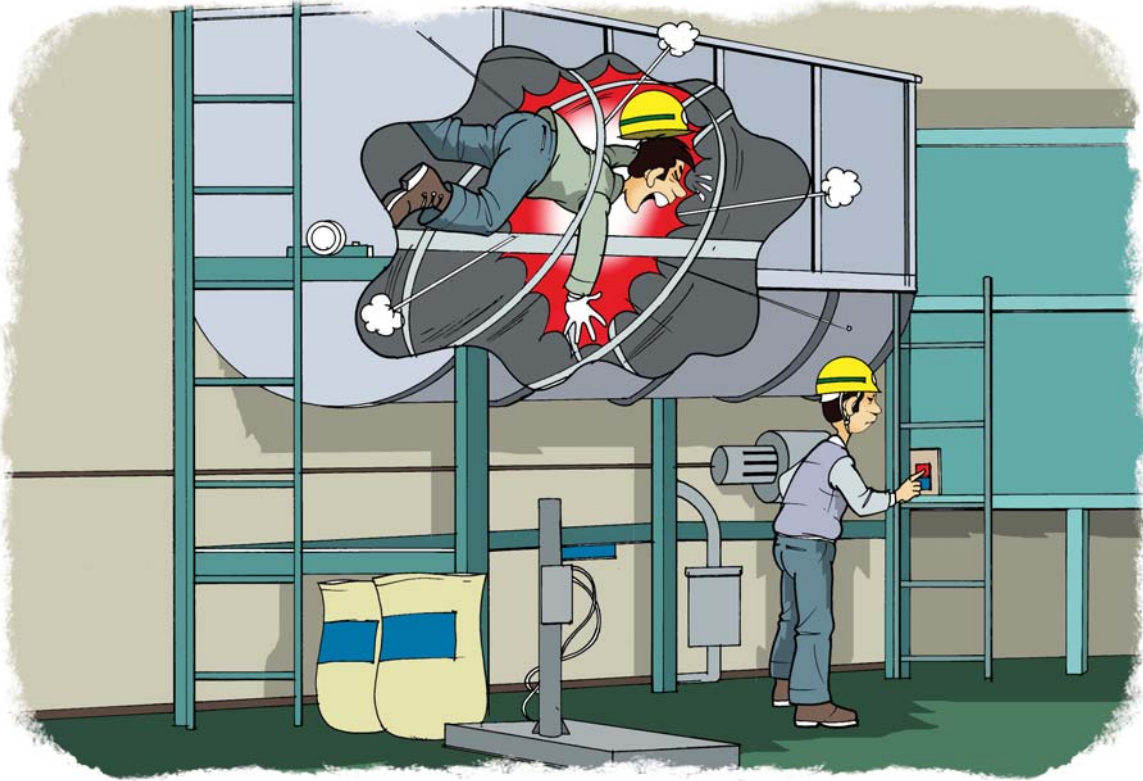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는 전류가 누설되었을 때 확실하게 작동하는 누전차단기에 접속해 사용해야 하며, 가능한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구를 사용해 감전의 위험을 최소한으로 낮추어야 한다.

* 전기기구 명판에 '回' 표시가 있는 것이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구임

기계야, 멈추어다오~

혼합기 안에 작업자 있는 것 모르고 동료가 전원 버튼 눌러 사망

안전사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 때문에 사고의 근본적인 요인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번 사례 역시 설비에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동료작업자가 아무리 전원 버튼을 눌렀더라도 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물질 제거 위해 혼합기 내부에 들어갔다가 사망

“저기~ 누가 포장작업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네, 제가 할게요.”

“그래, 그럼 윤씨가 수고 좀 해줘. 여기는 우리가 마저 정리할게.”

지난 3월, 경남 김해시 소재 한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장에서 윤씨와 동료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원료에 첨가물을 혼합하는 배합작업을 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작업이 정리되자 윤씨는 포장작업을 하러 자리를 옮겼다.

포장작업은 먼저 배합한 원료들이 고운가루가 될 수 있도록 혼합기에 넣고 섞은 후 포장용기에 받아내는 과정이다.



“어? 이물질이 나왔네. 들어가서 확인해봐야겠다.”

단독으로 포장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윤씨는 포장용기에 원료와 함께 이물질이 들어간 것을 발견했다. 혼합기 내부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을 중단한 후, 혼합기 상부의 덮개를 열고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포장작업장에 들어온 동료작업자 박씨는 앞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포장작업을 하기 위해 정지되어 있던 혼합기 전원 버튼을 눌렀다.

“으악~!”

그 순간 혼합기가 작동했고 윤씨는 혼합기 안 회전날개(임펠러)에 끼이는 재해가 발생했다. 비명소리에 놀란 박씨는 혼합기를 멈추고 119에 신고했지만 응급처치 중 사망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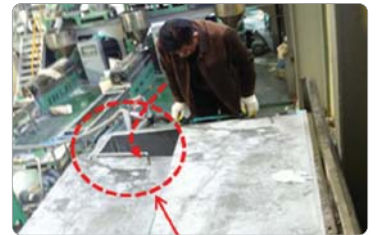
덮개 개방 시 전원이 들어와도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윤씨는 덮개를 열고 혼합기 안으로 들어갔고, 덮개는 계속 열려있는 상황이었다. 혼합기를 비롯해 각종 기계 덮개 개방 시에는 전원이 들어와도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이 같은 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설비의 유지보수 및 청소 등의 작업 시에는 장비 기동장치에 대해 다른 작업자가 수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동료작업자 박씨가 윤씨의 상황을 조금만 인식할 수 있었던 안내 표지만 있었어도 이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



피해자 이동경로
혼합기 상부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감



재해자가 혼합기 내부로 들어감



동료작업자가 혼합기 전원 버튼을 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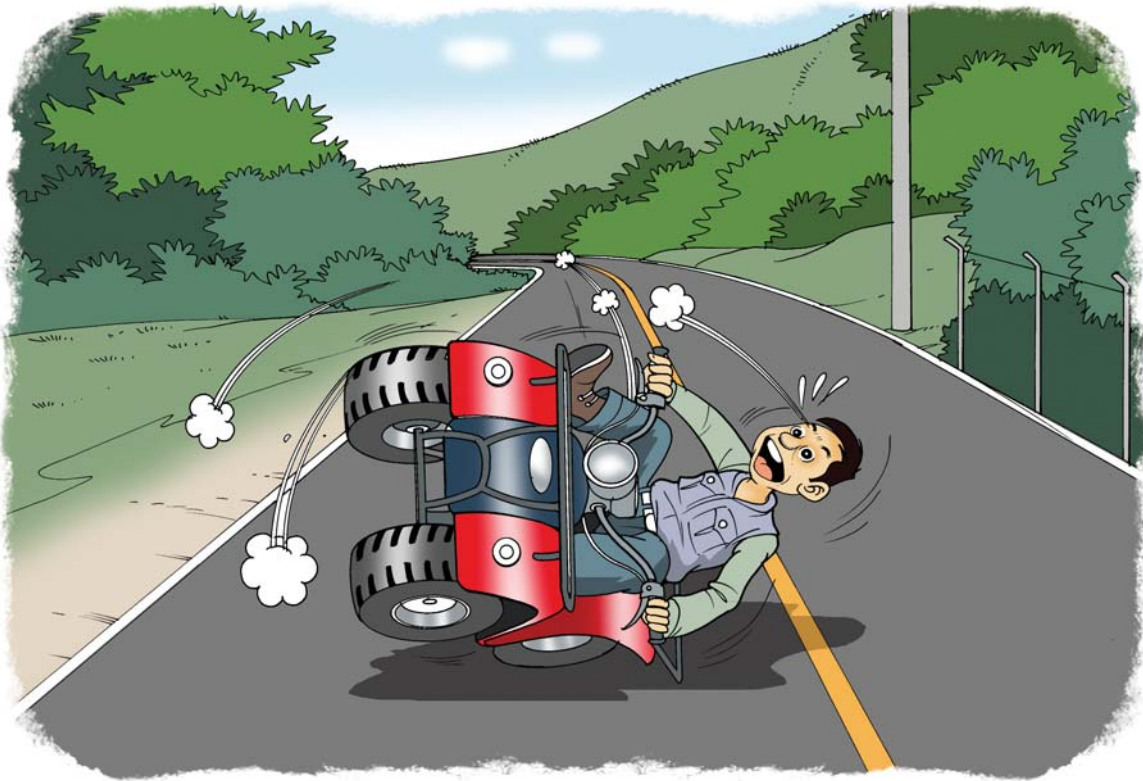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원이 들어와도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혼합기 덮개 개방 시 전원이 들어와도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 중 설비의 기동장치에는 다른 작업자가 작업 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사용해야 한다.

‘기본’을 지켜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안전장비 없이 4륜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 사망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헬멧 등과 같은 안전장비착용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례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다.



4륜 오토바이가 전복되며 머리 부딪혀

“이봐 최씨, 혹시 돈 좀 있으면 좀 빌려줘.”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참, 나 요즘 도로변에서 풀 베는 작업하는데 같이 가보면 어때?”

“그래? 나도 가볼까?”

지난해 5월, 전남 고흥군에 소재 한 중천회관 앞에 노인일자리사업 근로자들이 도로변 주위 풀베기 작업을 하기 위해 모였다. 장씨는 이날 처음으로 최씨를 따라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 저쪽 삼거리 주변에서 마저 하자. 삼거리까지 거리가 좀 되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해.



근데 장씨 오토바이 탈 줄 알아?”

“탈 줄 알지. 난 여기 좀 정리하고 출발할게. 먼저 가.”

일부 작업을 마친 최씨와 장씨는 장소를 옮겨 작업하기로 했다. 최씨가 출발하고 조금 뒤에 장씨는 4륜 원동기를 타고 삼거리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아~ 저쪽에 최씨 보이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주차하고 가면 되겠군.”

땡

장씨가 도로변 공터에 주차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는 순간, 오토바이가 전복되며 도로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큰 소리를 듣고 달려온 최씨와 동료들이 119에 급히 신고해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 했지만, 증상이 악화돼 결국 숨지고 말았다.

헬멧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

사고 당시 장씨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오른쪽에 4륜 오토바이를 주차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운전 미숙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이때, 장씨는 인명보호장구인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다륜형 원동기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등에 따라 차동기어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60km/h이내) 등이 있으나 운행조건, 도로여건에 따라 감속운전을 해야 한다. 작업장에서는 보호장비 지급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관련 법규를 알려주고, 안전사고에 대한 사항을 미리 교육시켜야 한다. ㉞



재해발생 현장 도로 전경



재해발생 4륜 원동기



손상된 오토바이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오토바이 등 다륜형 원동기를 운전할 때에는 머리나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헬멧 등과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내 PC에 깔기만 하면 최신 안전보건미디어 정보가 한 눈에 안전보건미디어 위젯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최신 미디어 정보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PC에 배달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속보와 공지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서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바이오리듬 조치는 보너스~ 지금 바로 안전보건미디어 위젯을 설치하세요!



안전보건미디어 위젯은?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여 공단 홈페이지와 연동시키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악성코드처럼 컴퓨터의 성능이나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다음 사항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 ☞ 지역별 날씨 및 안전메시지 표출
- ☞ 업종별 · 주제별 · 매체별 최신 미디어와 베스트 미디어 알림
- ☞ 공단 공지사항 및 중대재해 속보 알림
- ☞ 바이오리듬 조회 기능

* 궁금하신 점은 공단 교육미디어실(032-5100-685)로 문의하세요

지금 바로 **다운** 받으세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제목에
‘위젯’ 이라고 치고 검색하세요!



Feeling

느낌 나누기



아드레날린과잉증후군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부담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전달된다. 이들 호르몬의 공통점은 위기 상황에 몰린 몸이 최대한의 전투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혈당, 혈압, 심장 박동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남을 이기려는 경쟁심이나 솔한 노력들은 필연적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러다보니 과잉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은 몸을 긴장 시키고, 방아쇠만 당기면 튀어 나갈 총알처럼 민감해진다.

민감한 몸의 초기 증상은 조그마한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스스로 증상을 만들어 몸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민감한 몸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내몰릴 때의 결과다. 만사가 그렇듯 과하게 당겨진 활시위는 부러지기 십상이다. 극도로 민감해진 몸은 적절한 휴식 시점을 놓치면 결국 어떤 반응에도 무감각해지는 무력한 몸이 되고 만다. - 박민수 · 박민근 공저 <건강경영> 중



Theme Story - 경쟁

66 Theme Keyword

68 Theme Touch

70 Theme Essay

72 Theme Plus

74 지구촌 안전보건

76 Issue & Focus

78 KOSHA NEWS

80 안전인증현황

82 KOSHA Info & 독자퀴즈

경쟁의 진정한 아름다움

대한민국은 지금 오디션 열풍이다. 지난해 케이블 채널 Mnet의 '슈퍼스타K2'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가수, 연기자, 아나운서, 디자이너, 모델 등 분야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단순히 오락적인 요소를 넘어 서바이벌 속에서 펼쳐지는 경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쟁[competition]

같은 목적을 두고 서로 이기거나 앞서거나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겨루는 것.



중졸 학력의 천장 환풍기 수리공으로 지난해 케이블 채널 Mnet '슈퍼스타K2'에서 가창력을 인정받은 허각, 중국 옌벤 출신 조선족으로 집안 사정 때문에 9세 때부터 혼자 살아오다 한국에서 부모를 만나겠다고 MBC '위대한 탄생'에 참가한 백청강.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두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많은 사람과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그 결과 우승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큰 규모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만큼 이후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대중은 이 두 사람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중간에 탈락했다고 해서 그들을 패자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프로그램 출신 참가자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으며 격려도 아끼지 않고 있다.

참가자들 또한 서바이벌이라는 긴장감 넘치는 경쟁 구도임에도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였다. 실력을 겨뤄야 하는 순간에는 최선을 다했고, 이는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어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많은 화제를 불러온 MBC의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 역시 진정한 프로페셔널들이 보여 주는 경쟁의 참가치를 보여준다. 그들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경쟁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그들의 경쟁은 맑고 투명하다.

이러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경쟁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밀어내야 하는 식의 경쟁이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로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점이다.

요즘 시대에서 경쟁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도구가 아닌 서로의 발전을 위한 자극제로써 활용되어야 한다. 즉, 진정한 경쟁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경쟁인 셈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남들보다 앞서거나 남을 짓누르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경쟁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



선의의 경쟁으로 세상을 바꾸다



시대의 라이벌

정치가, 기업가, 예술가 등 개인의 범주를 넘어 시대에 영향을 끼친 이들에겐 모두 라이벌이 있다. 그들은 서로를 넘어서려고 대립하면서도 경쟁을 통해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도 한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기 자신은 물론, 세계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시대의 라이벌을 통해 경쟁의 참 의미를 되새겨본다.

IT계의 역사를 새로 쓰다

빌 게이츠 vs 스티브 잡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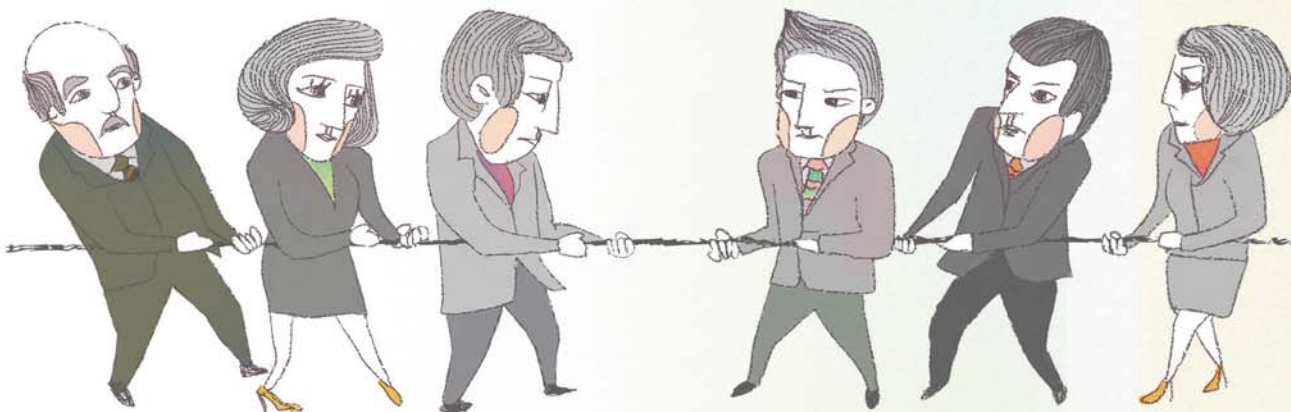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현재 세계를 대표하는 경영자이자 시대의 아이콘이다. 30여년간 경쟁하면서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모바일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있게 한 윈도우는 스티브 잡스가 만든 운영체제를 빌 게이츠가 개선시켜 만든 것이다.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를 빼앗은 것이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실리콘 밸리의 신화'에서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자, 빌 게이츠는 “난 흠치지 않았어. 모든 자동차에는 핸들이 있지만,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 때 핸들을 최초로 만든 회사에게서 흠쳤다고 말하진 않았어”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낸다.

이처럼 빌 게이츠는 앞서 가는 기업의 제품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제품을 탄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 사람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상대방보다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반면,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제품이 다른 기업보다 독창적이고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것이길 원한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이다.

두 사람의 대조적인 제품 개발과 경영방식으로 인해 현재의 IT산업이 발전했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편리해졌다.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앞으로 IT산업은 더욱 더 발전하지 않을까?



르네상스를 완성한 두 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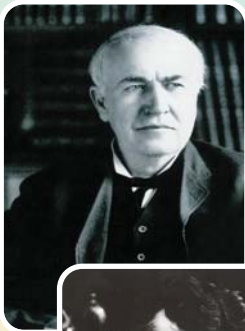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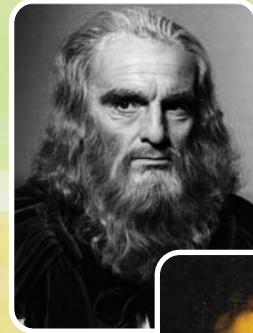
레오나르도 다 빈치 vs 미켈란젤로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다비드 상’ ‘천지창조’의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를 완성한 거장들이다. 두 사람은 같은 시기에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며 수준 높은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1504년에는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이 피렌체 정부 대회의장을 꾸미는 대규모 벽화 프로젝트에 참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높이 10미터, 폭 20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벽면 2개가 마련되었는데 한쪽 면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리고 다른 한쪽 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리도록 주어진 것이다.

당시 50대였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어느 정도의 명성이 있었던 지라 20대인 미켈란젤로와 한 자리에서 기량을 겨뤄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다. 미켈란젤로 역시 조각가로서의 명성은 있었지만 화가로서의 실력은 검증받은 적이 없어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명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고, 다양한 스타일로 벽화를 그려나갔다. 하지만 모두에게 부담감이 너무 컸던 탓인지 벽화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말았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새롭게 변화를 준 작업이 중간에 뜻대로 풀리지 않자 벽화 프로젝트를 포기했고, 미켈란젤로는 로마에서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피렌체를 떠났다.

비록 벽화는 완성되지 못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두 사람에게 자극제가 되어 이후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예술적으로도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전기 문명을 완성한 천재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vs 니콜라 테슬라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가 전기다. 19세기 말 미국의 발명가인 에디슨과 테슬라는 새롭고 더 밝은 빛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다.

두 사람은 한때 에디슨 연구소에서 함께 많은 발명품을 개발하며 연구에 몰두했지만 직류와 교류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테슬라가 연구소를 나오게 된다. 직류 방식으로 사업을 벌이던 에디슨은 점차 교류 방식 송전사업이 크게 성장하자 자신의 직류 방식만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테슬라는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보다 자신의 교류 방식의 전기가 더 뛰어나다고 확신하면서 의견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상대방보다 더 완성도 높은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 연구에 집중했다. 에디슨은 발명에서 나아가 관련 산업까지 창출해내는 기업가로서의 모습까지 보여 주었고, 테슬라는 25개국에서 272개의 특허를 획득한 세기의 발명가가 되었다.

1917년, 테슬라는 미국전기공학자 협회 시상식에서 “에디슨은 이론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고, 사전에 그 어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이라고 하며 에디슨을 찬사하기도 했다. ©

강요된 경쟁의 어두운 일면을 보다

올 초 국민 모두를 안타깝게 했던 일이 있었다. 카이스트 학생 네 명이 성적 비관과 우울증 등의 이유로 연이어 자살을 택했던 사건이었다. 전국에 내로라하는 영재들만 모인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카이스트 총장의 무한 경쟁주의를 질타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한 파격적인 정책들은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었다.

예를 들면 교수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전 과목 영어수업, 학점이 낮은 학생들에게만 부과되는 징벌적 등록금 등이다. 기업식 시장경쟁의 논리를 교육현장에 그대로 접목시킨 것인데,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점수경쟁에만 급급하게 된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특히 친구를 잃은 카이스트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경쟁에 거센 반기를 들기도 했다.

“학점 경쟁에서 밀려나면 패배자 소리를 들어야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고민을 나눌 여유조차 없는 이 학교에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숫자 몇 개가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잣대가 됐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 듣고 싶은 강의를 선택하기보다는 그저 학점 잘 주는 강의를 찾고 있다.”

한편에서는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공부를 게을리하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닌가, 하며 개혁정책에 동조하기도 했다. 학내에서의 경쟁조차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요즘 세대의 나약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란 의견도 있었다. TV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론이 줄곧 이어졌고, 거센 사퇴압박을 받던 카이스트 총장은 강경 개혁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타협을 보기도 했다.

사실 경쟁은 가장 빠른 시간에 효과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보이던 보이지 않던 우리는 늘 누군가와 경쟁하며 살아간다. 학생들은 성적보다 등수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회사원들은 빠른 승진을 위해 실적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하다못해 재래시장은 커다란 대형 마트와 경쟁하기도 한다. 이는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카이스트 사례처럼 경쟁에 져서 때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경쟁은?

요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대세다. 이미 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도전 슈퍼모델’, ‘아메리칸 아이돌’, ‘브리튼스 갓 탤런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커다란 인기를 불러 모은 바 있었다. 당시 내 친구가 이 같은 프로그램에 중독된 나머지 매일 밤 케이블 TV로 밤

아름다운 경쟁을 위하여

우리는 분명 거친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수도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좌절감을 맛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 아름다운 경쟁의 의미는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냈느냐에 있는 게 아닐까.



을 지새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유를 몰라 시큰둥했는데 요즘엔 내가 더 열중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사연을 보며 감정이입을 하기도 하고, 예상외의 놀라운 실력에 감탄하며 진심으로 성공을 기원하기도 한다. 사실상 한편의 쇼에 불과하지만, 어찌 보면 거대한 인생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도 든다. 모두 1등을 향해 달려가는 경쟁 안에서 우정도 생기고, 사랑도 싹트고, 서로 배우며 자극을 주고받기도 한다. 그렇게 모든 서바이벌이 끝났을 때 1등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가 한 단계 성장해있는 모습을 보면 많은 적든 얻어간 것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특히 요즘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흥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 과열된 양상도 없지 않다. 특히 MBC 일밤의 '나는 가수다' 같은 경우 가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며 예고편만으로도 수백 가지 추측성 루머가 떠돌기도 한다.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방증이어서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대개 이 프로그램 이야기로 대화가 채워지곤 한다. 비슷한 포맷으로 피겨 스케이팅에 도전한다든지, 오페라 가수에 도전하는 프로그램도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

상업적인 의도에서 출연했건, 이슈를 끌어보고자 하는 의도건 간에 나는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아름답다는 생각

을 한다. 어떤 목적이든 자발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어 고지에 다가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이미 서바이벌에 뛰어들 것과는 마찬가지로 아날까.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아니 더 잘 살기 위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정해 사회적인 성공을 향해 매진한다.

그러기 위한 선결 과제가 있다. 경쟁에 뛰어들어 이길 수 있을 만큼, 혹은 지더라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스스로가 단단해지는 것이 우선이다. 때문에 사람도 열 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게 자라다가, 충분히 튼튼해진 후에 세상에 나오지 않던가. 카이스트에서 치열한 경쟁에 도태되어 버린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다. 아직 준비가 덜 되고 여물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한 경쟁은 견디기 어려운 가혹함이었으리라.

우리는 분명히 거친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수도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좌절감을 맛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 아름다운 경쟁의 의미는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냈느냐에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도 '나가수'를 기다린다. 🌈



나만의 경쟁력을 높여라

THEME STORY

경쟁

요즘처럼 무한 경쟁인 시대에서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나만의 독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로 재해석될 수 있다. 개인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SUCCESS 전략'을 통해 나를 조금씩 업그레이드시킨다면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Simple 단순하게 정의하기

먼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적은 다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부터 순서를 정한다. 이 중에서 상대방에게 하나의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 가정하고 문장을 선택한다. 이렇게 정해진 메시지가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자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깔끔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소리 내어 읽어본다. 짧은 문장으로도 가슴이 설렌다면 꽤 성공적으로 SUCCESS 전략을 시작한 것이다. 이 문장을 자신의 메일이나 명함 아래에 함께 넣거나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곳에 써 놓는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이미지와 비전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Unique 독특함으로 기억되기

특별한 경험이나 독특한 향기, 충격적인 사건은 오래 기억되는 것처럼 개인브랜드에도 오래 기억될 수 있는 독특함이 필요하다. 이는 특별히 어렵거나 무엇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상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꾸며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스카프를 항상 목에 두르거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일정한 스타일의 액세서리를 착용하거나, 만날 때마다 메모지에 좋은 글귀를 적어 선물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긍정적인 독특함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하는 독특함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Core Contents 핵심 콘텐츠에 집중하기

인터넷상에서 이른바 '파워 블로거'라 불리는 사람들의 블로그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 보다는 하나의 콘텐츠를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다. 최근 유행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다. 이처럼 하나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성해야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할지가 선택되면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려야 목적 달성이 더 쉬워진다. '뭐 하면 누구'라고 바로 연상될 정도로 핵심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Credible 신뢰감 심어주기

사람들이 유명 브랜드를 찾는 이유 중에는 그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브랜드네임만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브랜드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약속 잘 지키기, 상대방 말에 귀 기울이기, 말과 행동에 책임지기 등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신뢰감은 형성된다. 이러한 사

소한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아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겨도 잘해낼 것 같다' '함께 일해도 좋겠다'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나의 숨은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Expert 전문가 되기

누구나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를 필요로 하고, 프로가 되길 원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의사소통 능력까지 갖춰야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전문가가 고객 요청에 의해 고장 난 컴퓨터를 수리했다고 하자. 문제 해결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 전문가는 고객에게 컴퓨터 고장 원인과 어떤 방법으로 수리됐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했다고 하여 업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마음까지 감동하게 할 줄 알아야 진정한 프로가 되는 것이며,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는 것이다.

Story 이야기하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여 성공했는지, 중간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지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궁금해 한다.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부분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개인브랜드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이야기는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감정의 정도가 달라진다. 목소리 톤이나 어조 등에 신경 써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경험했던 것 중 감동적이었거나 반전이 있었던 부분을 강하게 전달한다. 쉽고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해 상대방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상대방에 감동을 전달할 수 있으며 개인브랜드에 생명력을 갖게 해준다.

Social network system SNS 활용 · 확장하기

요즘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과 같은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개인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SNS 내에서 영향력이 커지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특성상 상대방의 얼굴이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방적인 것이 아닌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SNS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는 방법이다. 🌐

핀란드 직업건강연구소(FIOH) 근로자 건강과 생산성 위협하는 기후변화 연구 필요



핀란드 직업건강연구소(FIOH)는 아시아-태평양 뉴스레터(Asian-Pacific Newsletter)에 실린 보고서를 인용해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2~4℃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옥외 작업자가 더위에 노출되는 강도와 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WBGT 지표를 사용해 고온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업무 시간에 제한을 두고 근로자의 체온이 38℃를 넘어가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습구흑구온도(WBGT: Wet Bulb Globe Temperature)란 더위지수로서 온도, 습도, 복사열, 기류를 더한 환경의 4가지 요소를 반영한 지표이다.

WBGT가 상승했음에도 근로자가 신체노동의 강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일사병·열사병, 심실 과부하, 신장 손상 등과 같은 건강상의 위험이 증가해 결국 생산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근로자의 신체노동 강도를 많이 낮추게 되면 건강상의 위험은 줄어들지만, 생산성은 역시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사광선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장 내에 시원한 공기가 원활히 순환되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더운 시기와 시간에는 작업을 피하는 것도 좋다.

기후변화 예측치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지역별로 연간 업무능력이 0.1%에서 많게는 19%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앙아메리카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무더운 환경에서의 작업은 결국 산업보건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등 여러 국제기구의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출처〉 http://www.ttl.fi/en/publications/electronic_journals/asian_pacific_newsletter/pages/default.aspx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IOSH) 신규 캠페인 'Life Savings' 전개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IOSH)는 'Life Savings'를 주제로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Life Savings 캠페인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는 우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면 결과적으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기업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해 절감한 비용은 근로자의 안전보건향상에 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연구논문, 지침, 사례연구 등을 제공하는 한편 안전보건 관리와 비용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각 사업장의 참여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캠페인의 성공적인 전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는 산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경우, 매년 220억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영국 정부가 시행 중인 건축정책이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무료로 운영해 오던 영국 안전보건청(HSE)의 자문제공 핫라인(Infoline) 서비스 페이지 결정을 반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체육시설과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기업가·의사·교사 등 전문영역에 진출해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요구했다. 



〈출처〉 http://www.iosh.co.uk/news_and_events/campaigns/new_campaign_life_savings.aspx

다문화가정 등 10쌍 합동결혼식 개최

공단 교육원 강당서 지역사회 나눔의 장 마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박영수 원장 주례로 다문화 가정 10쌍 합동결혼식이 열리고 있다.

ISSUE

산업안전보건교육원(원장 박영수)은 지난 5월 28일 공단 교육원 강당에서 인천지역의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부부 10쌍을 초청해 무료 합동결혼식을 가졌다.

이날 결혼식에는 그동안 가정 형편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다문화 가정 5쌍과 장애인 부부 등 저소득층 가정 5쌍이 부부의 연을 맺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난 지 9년째인 베트남 신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남편과 7년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신부 등이 이날 주인공이었다.

박영수 교육원장의 주례로 혼인서약과 성혼 선언문 낭독 등이 진행됐으며, 부천시 소속 4인조 오케스트라단이 축하 음악으로 결혼식을 더욱 빛냈다. 교육원은 이날 결혼식을 위해 결혼예복, 부케, 식사, 사진촬영 등을 준비했으며 결혼한 부부들에게 축하 기념품도 증정했다.

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합동결혼식을 통해 문화와 계층 간의 화합이 모두 어우러져 나눔의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며 “교육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몽골에 한국형 재해예방 모델 전파


몽골 안전보건관계 공무원 안전보건초청연수 실시



몽골 안전보건관계 공무원들이 초청연수 입교식을 갖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몽골 안전보건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해 한국형 재해예방 모델을 전파했다. 공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력사업으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몽골의 주요 정부부처 안전보건관계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번 초청연수에는 몽골의 사회복지노동부, 국가전문감독원, 보건부, 국가재난방지청 등 주요 안전보건담당 공무원 17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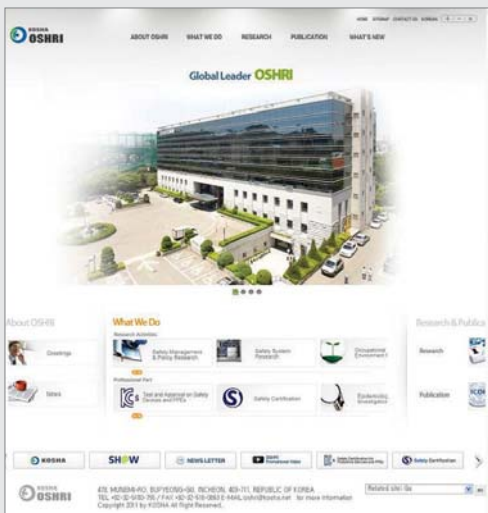
몽골은 2008년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는 등 최근 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KOICA 협력사업으로 지원받아 초청연수에 참여하게 되었다. 초청연수는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 사업장 견학, 토론 등 체험교육 방식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 산업시찰, 산업안전보건대회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한편, 공단은 몽골을 중점 지원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몽골 사회복지노동부와 국가전문감독원과의 기술협력 협정체결을 통해 초청연수, 공동연구 11회(108명), 현지기술자문 11회(13명)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FOCUS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영문홈페이지 개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강성규)은 국외 연구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력관계 활성화를 위해 영문홈페이지(oshri.kosha.or.kr/en)를 개설했다.

연구원 영문홈페이지는 방문자에게 초기화면 메뉴를 플래시 아이콘으로 구성해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연구원 소개를 비롯해 연구업무, 연구과제, 연구논문, 발간자료 등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보

호구와 S-Mark인증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안내하는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국외 방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효율적인 연구원 홍보와 정보교류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영문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됐다”며 “향후 국외 안전보건 연구기관과의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연구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세계 TOP 5 안전보건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도원

‘도·소매업종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최형철)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지난 6월 15일 구리농수산물공사 회의실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와 ‘도·소매업종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구리농수산물공사 내에 입

점한 중도매법인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강사지원, 재해예방 캠페인 공동 전개, 산업안전보호구 구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청과, 수산 도매상이 다수 입점한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넘어짐, 감전, 끼임 등 각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받게 된다.

서울지역본부

‘리프트 심사기준 적용 및 판정 평준화 토론회’ 실시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손두익)는 지난 5월 30일 안전인증 심사자를 대상으로 ‘리프트 심사기준 적용 및 판정 평준화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리프트 제작 및 안전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심사원의 제품심사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서면심사 시 기준 적용방법, KS C ICE 60204-1 적용방법,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기준적용에 대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심사원들 간의 기준 적용과 판정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공유하며, 위험기계의구인 리프트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경기남부지도원

근로자 건강 위한 직업건강협의회 운영

경기남부지도원(원장 경창수)은 지난 6월 23일 지도원 회의실에서 노동지청, 사업주·근로자단체,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보건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직업건강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1년 산업보건사업 현황사항’과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중요 사항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경창수 원장은 지도원에서 추진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과 질적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에 대해 알리며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직업건강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미디어실

시멘트제조업 산재예방 파트너십 구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멘트 제조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박동기 교육미디어 실장은 지난 6월 10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쌍용양회 종합기술훈련원 교육장에서 시멘트업종 협의회 신충호 회장과 '시멘트 제조업 재해예방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시멘트업종에서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해 공단과 시멘트업종 협의회가 공동으로 재해예방 자료를 개발하고 관련 사업장에 보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시멘트업종 협의회는 올해 말까지 작업공정별로 재해예방 동영상, 재해사례 애니메이션, 안전작업절차 리플릿 등 33종의 미디어를 공동 개발하고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협력사에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대구지역본부

대구도시공사와 '건설재해예방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역본부(본부장 홍경표)와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6월 3일 대구도시공사 본사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공단은 합동 안전보건 점검과 안전보건교육, 건설관련 안전보건 정보자료제공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도시공사는 공단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자체적인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주요 지방 공공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건설 재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서부지도원

'안전안산, 안심ilter 만들기' 워크숍 개최



경기서부지도원(원장 김병진)은 지난 6월 10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안산시, 전기안전공사, 선도경영인협의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등과 함께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전안산, 안심ilter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공단과 안산시가 체결한 '안전안산, 안심ilter 만들기'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안전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진 원장은 인사말에서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안산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경남동부지도원

'건물관리업 재해예방 협의회' 실시

경남동부지도원(원장 이덕재)은 지난 6월 8일 김해지부와 김해지역 아파트 관리소장 70명을 대상으로 '건물관리업 재해예방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는 건물관리업의 안전의식을 높여 관내 지역의 산재예방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2011년 건물관리업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비롯해 안전보건 컨설팅·클린사업장 조성 등 서비스업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협의했다.

2011년 5월 안전인증 취소현황



【보호구】

· 안전모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안전모	안모 제987호-1	새한세코	SECO-H1	11-05-01
	안모 제988호-1	새한세코	SECO-H1	11-05-01
	안모 제991호-1	명신광학	MSO FS-800	11-05-08
	안모 제416호-3	스왈록아시아(주)	SWA501A	11-05-18
	안모 제422호-3	스왈록아시아(주)	SWA502ABE	11-05-18
	안모 제992호-1	국제안전물산(주)	K537	11-05-18
	안모 제993호-1	(주)지엔에스테크	PH-07	11-05-18

· 안전대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안전대	안대 제1090호-1	(주)성안세이프	SAHS-2006	11-05-03
	안대 제1092호-1	(주)에스탑	SHHA-1023	11-05-03
	안대 제1095호-1	(주)성안세이프	SAB-2006C	11-05-03
	안대 제1096호-1	(주)성안세이프	SAB-A2006C	11-05-03
	안대 제1097호-1	(주)성안세이프	SABA-2006AS	11-05-03
	안대 제1098호-1	(주)성안세이프	SABA-2006AL	11-05-03
	안대 제1099호-1	(주)성안세이프	SAJS-2006(A)	11-05-03
	안대 제1100호-1	(주)성안세이프	SAJS-2006(B)	11-05-03
	안대 제1635호-1	기간산업	Talon 8FT	11-05-07
	안대 제1636호-1	기간산업	"Exofit XP1108576"	11-05-07
	안대 제1637호-1	스왈록아시아(주)	COLOCK AE	11-05-07
	안대 제1638호-1	스왈록아시아(주)	COLOCK AOEB	11-05-07
	안대 제1640호-1	(주)영진산업안전	YS-AALAW-2126B2	11-05-15

· 안전화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가족제 안전화	가안 제2098호-1	영진산업(주)	LOT-606	11-05-07
	가안 제2099호-1	(주)슈렉스코리아	SR-617N	11-05-07
	가안 제2100호-1	(주)슈렉스코리아	REX 8000	11-05-07
	가안 제1269호-2	(주)빅토스	VTS-404	11-05-15
	가안 제1270호-2	(주)빅토스	VTS-406	11-05-15
	가안 제2101호-1	육일산업(주)	UI-401	11-05-15
	가안 제2102호-1	육일산업(주)	UI-601	11-05-15
	가안 제2103호-1	육일산업(주)	UI-801	11-05-15
	가안 제2104호-1	(주)보스산업	WS-409ST	11-05-15
	가안 제2105호-1	(주)보스산업	WS-632H	11-05-15
	가안 제2106호-1	(주)보스산업	WS-832H	11-05-15
	가안 제2107호-1	한스산업(주)	HS-39-1	11-05-15
	가안 제2108호-1	피엠에스인터내셔널	PMS-804A	11-05-15
	가안 제2109호-1	피엠에스인터내셔널	PMS-804B	11-05-15
	가안 제2110호-1	피엠에스인터내셔널	PMS-804C	11-05-15
	가안 제2111호-1	(주)슈맥스	SI-601	11-05-15
	가안 제2112호-1	잔디로	N505B	11-05-22
	가안 제2113호-1	잔디로	N605B	11-05-22
	가안 제1271호-2	(주)빅토스	VTS-104	11-05-25
	가안 제1272호-2	(주)빅토스	VTS-204	11-05-25
	가안 제1273호-2	(주)빅토스	VTS-206	11-05-25
	가안 제1274호-2	(주)빅토스	VTS-208	11-05-25
	가안 제1275호-2	(주)빅토스	MK2-902	11-05-25
	가안 제2114호-1	(주)에이치비	HBS-498	11-05-25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가족제 안전화	가안 제2115호-1	(주)에이치비	HBS-880	11-05-25
	가안 제2116호-1	(주)에이치비	HBS-880Z	11-05-25
	가안 제2117호-1	(주)에이치비	HBS-881Z	11-05-25
	가안 제2118호-1	(주)에이치비	HBS-881ZA	11-05-25
	가안 제2119호-1	가야하이텍(주)	JS-801	11-05-25
	가안 제2120호-1	피엠에스인터내셔널	PMS-805A	11-05-25
	가안 제2121호-1	피엠에스인터내셔널	PMS-805B	11-05-25
절연화	가안 제2122호-1	피엠에스인터내셔널	PMS-805C	11-05-25
	절안 제124호-1	영진산업(주)	WK-2008HCR	11-05-07
	절안 제76호-2	(주)빅토스	VTS-808	11-05-25

· 보안경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차광 보안경	차안제110호-3	동일광학	LT-00-B-018(#2.5)	11-05-05
	차안제296호-2	동일광학	LT2005-606-B	11-05-05
	차안 제455호-1	고려프라스틱	KR-SG-7-#2.0	11-05-22
	차안 제339호-1	(주)오토스광학	C-707B(#1.2)	11-05-24
프라스틱 보안경	프안제168호-3	바쿠우달로즈코리아(주)	OPTEMA	11-05-05
	프안제178호-3	대원보호구(주)	LT808-G	11-05-05
	프안제183호-3	바쿠우달로즈코리아(주)	LG 20	11-05-05
	프안제351호-2	대원보호구(주)	LT808-G-2	11-05-05
도수렌즈 보안경	프안 제499호-1	동일광학	LT-2002-ATF	11-05-05
	프안 제500호-1	동일광학	LT-808-AG	11-05-20
	프안 제501호-1	동일광학	LT-808-G-ATF	11-05-20
	도안 제341호-1	(주)오토스광학	B-7100AS(S-2.00)	11-05-20
	도안 제342호-1	(주)오토스광학	B-7100AS(S-3.00)	11-05-20
	도안 제343호-1	(주)오토스광학	B-7100AS(S-4.00)	11-05-20
	도안 제344호-1	(주)오토스광학	B-7100AS(S-5.00)	11-05-20
	도안 제345호-1	(주)오토스광학	B-7100AS(S-6.00)	11-05-20
	도안 제346호-1	(주)오토스광학	B-7100AS(S+1.00)	11-05-20
	도안 제347호-1	(주)오토스광학	B-7100AS(S+2.00)	11-05-20
	도안 제348호-1	(주)오토스광학	B-7100AS(S+3.00)	11-05-20
	도안 제349호-1	(주)오토스광학	B-7100AS(S+4.00)	11-05-20
	도안 제350호-1	(주)오토스광학	B-7100AS(S+5.00)	11-05-20
	도안 제351호-1	(주)오토스광학	B-7100AS(S+6.00)	11-05-20

· 일반보안면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일반보안면	일보 제164호-1	(유)고산테크	KST-V1	11-05-29

· 방진마스크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방진 마스크	방진 제752호-2	(주)진아산업	M1501D	11-05-05
	방진 제757호-2	(주)코넥	CS20	11-05-05
	방진 제758호-2	(주)코넥	CV20	11-05-05
	방진 제759호-2	(주)코넥	CS 29	11-05-05
	방진 제760호-2	(주)코넥	CV 29	11-05-05
	방진 제1076호-1	(주)우리텍	N-1206F	11-05-05
	방진 제1077호-1	(주)우리텍	N-1306F	11-05-05
	방진 제451호-3	바쿠우달로즈코리아(주)	W5141(ML/XL)	11-05-15
	방진 제452호-3	바쿠우달로즈코리아(주)	W5140(ML/XL)	11-05-15
	방진 제453호-3	영승인더스트리	YS 1050-02	11-05-15
	방진 제475호-3	바쿠우달로즈코리아(주)	"Willson 5251(M/L/XL)"	11-05-15

	합격번호	제조사,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방진 마스크	방진 제487호-3	바쿠우달로즈코리아(주)	"Willson 5321(M/L/XL)"	11-05-15
	방진 제488호-3	바쿠우달로즈코리아(주)	"Willson 5211(M/L/XL)"	11-05-15
	방진 제508호-3	(주)아산업	M1001D	11-05-15
	방진 제766호-2	세창안전	"프레쉬에어SM-8001"	11-05-15
	방진 제767호-2	영승인더스트리	YS1070	11-05-15
	방진 제768호-2	영승인더스트리	YS1020S-04	11-05-15
	방진 제769호-2	영승인더스트리	YS1050DSP-03	11-05-15
	방진 제770호-2	영승인더스트리	YS1050DSP-03C	11-05-15
	방진 제1078호-1	모아세이프	S202A1	11-05-15
	방진 제1079호-1	모아세이프	S141A1	11-05-15
	방진 제1080호-1	모아세이프	S201A1	11-05-15
	방진 제1081호-1	에스제이티(주)	FM-2008	11-05-15
	방진 제1085호-1	(주)우리텍	N-1306	11-05-15
	방진 제1086호-1	(주)우리텍	N-6102A	11-05-15
	방진 제1087호-1	(주)우리텍	N-6202A	11-05-15
	방진 제1088호-1	(주)우리텍	N-7000A	11-05-15
	방진 제1089호-1	(주)우리텍	N-7101A	11-05-15
	방진 제1090호-1	(주)우리텍	N-7302A	11-05-15
	방진 제1091호-1	(주)영양산업	1980D	11-05-15
	방진 제1094호-1	모아세이프	S9170	11-05-15
	방진 제1095호-1	모아세이프	S9100	11-05-15
	방진 제1096호-1	모아세이프	S9177	11-05-15
	방진 제410호-3	(주)에버그린	200	11-05-28
	방진 제411호-3	(주)에버그린	300B	11-05-28
	방진 제478호-3	(주)에버그린	400V	11-05-28
	방진 제479호-3	(주)에버그린	420V	11-05-28
	방진 제528호-3	(주)에버그린	210B	11-05-28
	방진 제529호-3	(주)에버그린	310B	11-05-28

· 방독마스크

품명	합격번호	제조사,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겸용)	방독 제300호-1	삼공물산(주)	DM 2200 / 200	11-05-07
방독마스크	방독 제301호-1	삼공물산(주)	GM 2200 / 300	11-05-07
	방독 제302호-1	삼공물산(주)	GM 24 / 104M	11-05-07

· 방음보호구

품명	합격번호	제조사,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방음보호구	방음 제265호-1	(주)조은소리보청기	N/P	11-05-11

【방폭 전기기기】

· 전동기

품명	합격번호	제조사,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삼상유도전동기	2006-1044-Q1	현대중공업(주)	HME5 352-66E	11-05-07
	2006-1045-Q1	현대중공업(주)	HMQ3 635-66E	11-05-07
전동식 밸브 작동기	2006-1047-Q1	(주)에치케이 콘트로매틱	HQ-060 LCU-A/B1-PCU	11-05-17
삼상유도전동기	2006-1048-Q1	현대중공업(주)	HME5 404-38E	11-05-17
	2006-1049-Q1	현대중공업(주)	HME5 404-58E	11-05-17
	2006-1050-Q1	현대중공업(주)	HME5 354-46E	11-05-17
	2006-1051-Q1	현대중공업(주)	HMQ7 507-26E	11-05-17
	2006-1052-Q1	현대중공업(주)	HME5 404-26E	11-05-17
"Position Transmitter(Fisher Controls International, 미국)"	2006-2087-Q1	(주)한국에프에이	4200/4210/4211	11-05-18
VIBRATOR	2006-1053-Q1	대성기계공업(주)	DSV-ED 45-6	11-05-22
삼상유도전동기	2006-1054-Q1	(주)효성원천3공장	EF(200L)	11-05-22
"Mass Flow Controller(Brooks Instrument B-V, 네덜란드)"	2006-2088-Q1	(주)중앙진공	5882	11-05-29
"Smart Mass Flow Controller(Brooks Instrument B-V, 네덜란드)"	2006-2089-Q1	(주)중앙진공	MF50/51/53	11-05-29

품명	합격번호	제조사,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Smart Mass Flow Meter(Brooks Instrument B-V, 네덜란드)"	2006-2090-Q1	(주)중앙진공	MF63S	11-05-29

· 제어기

품명	합격번호	제조사,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HEATER LOCAL CONTROL PANEL	2006-1055-Q1	삼원제전(주)	SW-VD-H0403	11-05-29

· 계측기류

품명	합격번호	제조사,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가스누설감지기	2006-1046-Q1X	(주)가스트론	GTD-300IR	11-05-07
"CANNED MOTOR PUMP(TEIKOKU ELEC TRIC MFG-CO., LTD, 일본)"	2006-2080-Q1	(주)테이코쿠코리아	518	11-05-09
"Pressure Transmitter(ABB Instrumentation spa, 이탈리아)"	2006-2081-Q1	(주)ABB코리아	264DC	11-05-09
"Text Display(Measurement Technology Ltd., 영국)"	2006-2082-Q1	(주)유존상사	MTL 647	11-05-18
"Segment Protector(Pepperl+Fuchs GmbH, 독일)"	2006-2083-Q1X	페펄앤드폭스 코리아(주)	R-SP-E12	11-05-18
"Temperature Multi Input Device(Pepperl+Fuchs GmbH, 독일)"	2006-2084-Q1	페펄앤드폭스 코리아(주)	**D0-TI-***	11-05-18
"Temperature Multi Input Device(Pepperl+Fuchs GmbH, 독일)"	2006-2085-Q1	페펄앤드폭스 코리아(주)	**D0-TI-***	11-05-18
"IP Transmitter(Fisher Controls International, 미국)"	2006-2086-Q1	(주)한국에프에이	i2P-100	11-05-18

【안전장치】

품명	합격번호	제조사,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000-1019-A3	(주)보창프레스	BMC-01	11-05-26
역회방지기	2008-1002-D1	선양금속	SYM-07	11-05-29
	2006-2003-J1	(주)인텍스코리아	LTC	11-05-01
크레인 방호장치	2006-1004-J1	(주)반도호이스트크레인	BDL-250	11-05-22
	2006-1005-J1	(주)반도호이스트크레인	BCDL-80	11-05-22
리프트 방호장치	2006-1003-L1	(주)포인트	PL-500L	11-05-09
	2006-1004-L1	(주)포인트	PL-680L	11-05-09
압력용기 방호장치	2008-1012-N1	(주)대흥이엔텍	NS 255	11-05-08
	2008-2026-M1	(주)대흥이엔텍	NS 255	11-05-01
	2008-2027-M1	(주)대흥이엔텍	NS 255	11-05-01
	2008-1028-M1	(주)삼양발브중합메이커	YSF-3	11-05-05
보일러 방호장치	2008-1029-M1	(주)삼양발브중합메이커	YSF-5	11-05-05
	2008-2030-M1	(주)금강이앤아이	HSJ-46	11-05-05
	2008-2031-M1	(주)대흥이엔텍	NS 255	11-05-22
	2005-1009-C2	양산기공(주)	DAG-4SX	11-05-15
연삭기 방호장치	2005-1010-C2	양산기공(주)	DAG-6SX	11-05-15
	2005-1011-C2	양산기공(주)	DAG-100SP	11-05-15
	2008-1018-C1	제이엔씨환경	JGC-1	11-05-15
목재가공용 동근톱 방호장치	2008-2004-F1	(주)삼진상석상사	C8FSE/C8FSHE	11-05-15

* 안전인증 합격현황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 안전인증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mination Info

* 안전보건공단 경영방침

건강한 일꾼 · 안전한 일터 · 튼튼한 사회

- 과학화(선택과 집중)
- 허브화(협력과 지원)
- 분권화(자율과 창의)
- 열린문화(소통과 배려)

* 고객불편신고센터

TEL(국번없이) 1644-4544 FAX 1644-4549

<http://www.kosha.or.kr/고객참여>

* 부정 · 비리 신고센터 운영

우리공단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부정 ·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불친절하고 권위적이거나 부정 · 비리에 관련된 행동을 하였을 때 아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면 검소한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설치장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실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우편번호 403-711)
- 전 화 : (032) 5100-732~735
- 저희 공단 감사실 외에 지역본부장실 및 지도원장실도 부정 · 비리 신고센터입니다.

KOSHA 본부 · 산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032-5100-500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032-5100-761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032-510-0935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9-6 유한양행빌딩 14,15층	02-828-1600
서울북부지도원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길 5(봉래동1가 10) 우리빌딩 7,8층	02-3783-8300
강원지도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대로 103(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04
강릉산업안전보건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1001) 강릉시청 15층	033-655-1860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486-49	051-520-0510
울산지도원	울산광역시 남구 뚝지로 180(달동 615-8) 국민은행빌딩 2,4,5층	052-226-0500
경남지도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로 159(용호동 7-3)	055-269-0510
경남동부지도원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석산리 1440-1) 양산노동조합청사 4층	055-371-7500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동인동2가 50-3) 호수빌딩 19,20층	053-6090-500
경북북부지도원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4길 7(임수동 92-60)	054-478-8000
경북동부지도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대도동 124-4) MPZONE빌딩 1~4층	054-271-2014
경인지역본부	인천시 서구 한빛로15(가정동 491지)	032-5707-200
경기남부지도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511(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층	031-259-7149
경기북부지도원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1층	031-841-4900
경기서부지도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길 42(고잔동 729-2) 센트럴시티웨딩홀 2층	031-4817-599
경기동부지도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3(금곡동 106-2) 소곡회관 4층	031-785-3300
부천지도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3 대신프라자 3층	032-680-6500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31-14(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빌딩 8,9층	062-949-8700
전북지도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 1가 807-8) 노동부 종합청사 3,4층	063-240-8500
전남동부지도원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 중앙로 72(선원동 1285)	061-689-4900
제주지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95(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4층	064-797-7500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229-60(문지동 104-7)	042-620-5600
충북지도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3로 12(가경동 1171) 한국통신빌딩 3층	043-230-7111
충남지도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번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3층	041-570-3400

Quiz Quiz 다른부분찾기

아래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 동봉된 <독자엽서>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때에는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을 꼭 남겨주세요.



국민 여러분! 추천해주세요 산재예방 달인



산재예방 달인이란?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숨은 공로자를 매월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추천방법

인터넷 또는 우편(E-mail) 접수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기간 및 포상

• 연중 수시 접수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패를 수여
※ 산재예방유공자포상(매년 7월)시 가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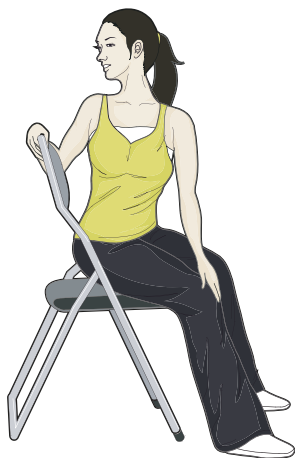
추천대상

남다른 소신과 열정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신 분
※ 안전보건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신 분

문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산재예방정책과(전화 02-6922-0922, 09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바른 자세를 위한 스트레칭



- ① 한쪽 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서 꼬아 준다.
- ② 천천히 몸을 비틀어 의자 뒤를 잡는다.
- ③ 5~1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다.
- ④ 고정된 다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반복 시행한다.

1



- ①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 ② 등 뒤로 두 손을 짚지 않고 가슴을 펴준다.
- ③ 5~1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다.
- ④ 팔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반복 시행한다.

2



- ①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 ② 허리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몸을 비틀어 준다.
- ③ 5~1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다.
- ④ 다리를 고정하고 반대쪽으로 시행한다.

3



- ①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 ② 두 손을 짚지 않고 머리 뒤에 받치고 천천히 팔꿈치를 뒤로 넘겨준다.
- ③ 허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5~1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다.

4

뜨거운 태양 가릴 수 없다면... 안전을 준비하세요



조심!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무더운 여름철에 고열환경에서 작업하거나 야외작업시 열사병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 환경변화에 대하여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려는 신체보호기능이 있어 고열환경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계속 할 경우 혈류량이 증가하고 땀을 흘려 열을 발산시키는 등 체온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부의 온도보다 주위기온이 더 높으면 우리 몸은 열 발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온조절기능에 이상이 발생되어 열사병 등 고열장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고열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1차 생리적 영향	2차 생리적 영향
피부혈관의 확장	심혈관장해
발한	수분과 염분 부족
근육이완	요량감소로 인한 신장장해
호흡증가	위장장해
체표면적증가	신경계장해(사망)

고온의 노출기준

작업휴식시간비	작업강도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계속작업	30.0℃	26.7℃	25.0℃
매시간 75%작업, 25%휴식	30.6℃	28.0℃	25.9℃
매시간 50%작업, 50%휴식	31.4℃	29.4℃	7.9℃
매시간 25%작업, 75%휴식	32.2℃	31.1℃	30.1℃

경작업 : 앉거나 서서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
중등작업 :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 등
중작업 : 곡괭이질 또는 삽질 등

2011. 07

설문엽서를 보내주십시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엽서는 더 좋은 「안전보건」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문엽서를 보내 주신 분께는 12월에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대상(1명) : 50만원 상당의 상품
 금상(2명) : 30만원 상당의 상품
 장려상(1,200명) : 소정의 기념품



2011. 07

설문엽서

보내는 사람

이 름 :

주 소 :


전 화 :

e-mail :

-

2011. 07

안전보건

받는 사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교육미디어실 <고객평가> 담당자 앞

4 0 3 - 7 1 1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 유효기간
 2011.7.1~2013.6.30
 인천계양우체국 승인
 제40042호

보내는 사람

이 름 :


주 소 :

전 화 :

e-mail :

-

2011. 07

받는 사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교육미디어실 정기간행물 담당자 앞

4 0 3 - 7 1 1

●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안전보건자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본 설문지에 기입된 내용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본 설문지를 복사하여 Fax(032-502-0049)로 송부하셔도 됩니다.

☒ 본 자료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디자인 · 편집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내용구성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반적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 본 자료가 귀하의 재해예방활동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 월간 '안전보건'에 대한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업종

- | | |
|-----------------------------------|-----------------------------------|
| <input type="radio"/> 제조업 | <input type="radio"/>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 <input type="radio"/> 건설업 | <input type="radio"/> 교육서비스업 |
| <input type="radio"/> 임업 | <input type="radio"/> 도 · 소매업 |
| <input type="radio"/>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input type="radio"/> 음식업 |
| <input type="radio"/> 건물종합관리업 | <input type="radio"/> 기타산업 |

규모

- | | | |
|--------------------------------|-------------------------------|------------------------------|
| <input type="radio"/> 5인미만 | <input type="radio"/> 5~49인 | <input type="radio"/> 50~99인 |
| <input type="radio"/> 100~299인 | <input type="radio"/> 300인 이상 | |

☒ 귀하께서는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경영층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기타

독자의 소리

㊦ 이번 호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기사와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월간 <안전보건>을 읽고 난 소감이나 의견을 알려주세요.

Quiz Quiz
다른부분찾기



2011년 6월호 당첨자 명단

공선민 - 경북 영주시 휴천동

이진명 - 경기 시흥시 정왕동

김경한 - 서울시 노원구 월계1동

민정아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지난호 정답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나라



The 44th Week of Safety & Health

제44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2011. 7. 4월 ~ 9토 / COEX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 일시 : 2011년 7월 4일(월) 11:00~13:00
- 장소 : COEX 그랜드볼룸(101~103호)



안전보건세미나

- 기간 : 2011년 7월 4일(월) ~ 7월 8일(금)
- 장소 : COEX 컨퍼런스센터, E홀 및 그랜드 볼룸(104~105호)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

- 기간 : 2011년 7월 4일(월) ~ 7월 7일(목)
- 장소 : COEX 3층 컨퍼런스센터 및 E홀



국제안전보건전시회

- 기간 : 2011년 7월 4일(월) ~ 7월 7일(목)
- 장소 : COEX 1층 Hall A(구 태평양홀)
- 개막식 : 2011년 7월 4일(월) 10:00~10:50



안전 동요제

- 일시 : 2011년 7월 5일(화) 13:00~17:00
- 장소 : COEX 오디토리움



강조주간 특집 1대100퀴즈대회

- 녹화 : 2011년 6월 19일(일) 18:00~22:00
- 방송 : 2011년 7월 5일(화) 20:50~21:50
- 장소 : KBS TV 공개홀(여의도 소재)



안전보건 UCC Show

- 기간 : 2011년 7월 4일(월) ~ 7월 7일(목)
- 장소 : 국제안전보건전시회(Hall A)내 안전보건홍보관



안전문화 포스터 그리기 대회(본선대회)

- 일시 : 2011년 7월 4일(월) 13:00~16:00
- 장소 : 국제안전보건전시장 내 이벤트존



안전문화 백일장(본선대회)

- 일시 : 2011년 7월 6일(수) 13:00~16:00
- 장소 : 국제안전보건전시장 내 이벤트존



산업안전보건인의 밤

- 일시 : 2011년 7월 7일(목) 17:00~20:00
- 장소 : COEX 컨퍼런스센터 402호